

-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内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勢力調査研究－共產圈

東欧共產主義의 變質過程研究

전산필

研究執筆責任

(略歷)

李



西独 Bonn 大学 史学科 卒業 (1957)

奥地利 Vienna 大 博士 (1961)

東国太学校 教授 附設 東欧問題

研究所長 (1963-1974)

西独 Köln 大学校 史学科 研究教授 (1969. 9-1972. 2)

外交研究院 非常任研究委員 (1966-1972. 2)

国土統一院 非常任研究委員 (1966-1974)

誠信女師大·淑大 講師 (1976-현재)

刊行責任

丁

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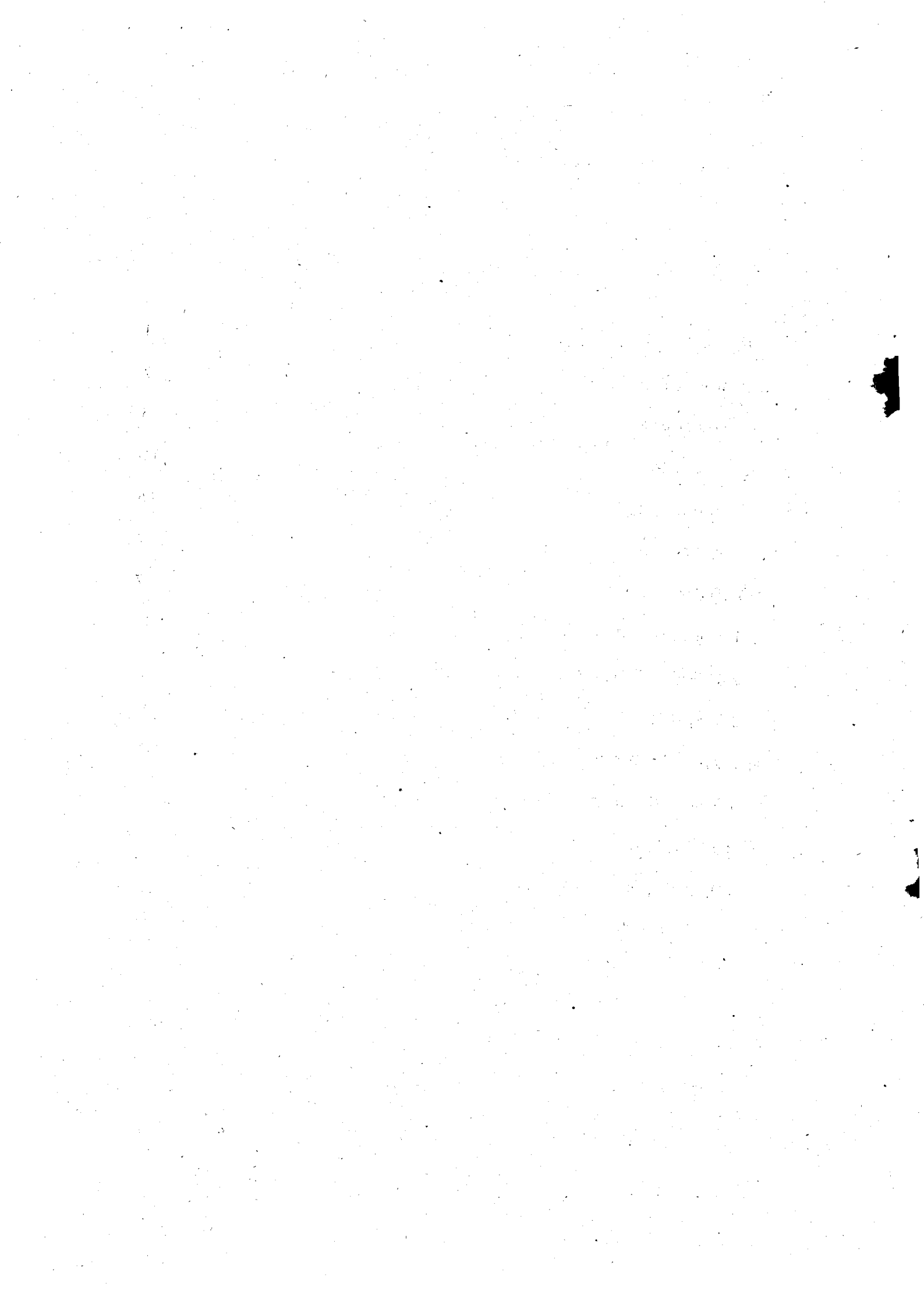
鉉 (調査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東欧共産主義에 関한 研究〉

** 目 次 **

1. 序 論	1
2. 東欧共産主義의 主流	7
가) Bolshevism	8
나) Titoism	12
다) Trotskism	25
3. 東欧共産主義의 実態	37
가) 国策의 実際	37
1) 유고의 独自路線	37
2) 루마니아의 民族共産主義	49
3) 체코의 中斷된 改革路線	60
나) 西欧共産主義에 对한 東欧圈의 見解	72
1) 유고가 보는 西欧共産主義	72
2) 루마니아가 보는 西欧共産主義	79
3) 헝가리가 보는 西欧共産主義	84



1. 序 論

共產主義라는 말은 1830년 무렵 프랑스에서 나왔고 1840년 이후에 비로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자를 규정하는데는 두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수단의 社會化 (Sozialisierung)를 지지하는, 소위 마르크스의 理想社會論이 구현되기를 원하는 자가 공산주의 자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지하고 蘇聯공산당의 進路를 理想視하는 자가 공산주의 자인 것이다.

공산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위와같이 廣義와 狹義의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자가 분별되기에 이르렀지만,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의 근원은 하나이다. 그래서 유럽공산주의 (Eurocommunism)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東西歐의 공산주의를 총칭하는 말이어야 하는데도 마치 공산주의라는 語義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蘇聯 및 東歐공산주의보다 좀 달리 독자적인 理念路線을 제시한 西歐공산주의를 가르쳐 유럽공산주의라고 일컬고 있다.

그러면 유럽공산주의란 무엇이나? 한 말로 하면 蘇聯공산당처럼 一黨獨裁를 내세우지 않고 공산당 기구를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기관으로 보고 이를 西歐사회와 특색인 민주제도에 의거 계속 민주화하여 마침내 이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理想社會論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유럽공산주의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공산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Sozialisierung) 라는 마르크스의 사회觀을 구체화할 것을 투쟁 목표로 하되 이의 실천을 시민혁명과 공업화를 체험한바 있는 서구사회의 여건에 맞추어 의회민주주의적 투쟁방법으로 감행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되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바 있는 서구적 전통의 바탕위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서구적 독자노선을 제시하면서 지금 蘇聯 및 東歐에서 행해지는 사회주의가 「참된 사회주의」 (Der Wahre Sozialismus) 가 아님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참된 사회주의 이론을 전개·시도하는 유럽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사회觀을 재검토 하고 있고, 나아가선 마르크스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 유럽공산주의 출현의 사회적 및 정신적 근원을 규명·시도하고 있다.

유럽공산주의의 사회적 근원에는 농업적인 요인이 있고, 또 정신적 근원에는 개혁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 물론 同論拠는 직접 유럽공산주의자가 규명·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同論拠를 원용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공산주의 속에 농업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Maoism 이나 Fidelism 이 유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개혁적인 특색이 없었다면 유럽공산주의가 민족적인 발전경향으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註1)

註1) G. Bartsch, Die Hauptströmungen des europäischen Kommunismus, Hanover/1971, S.7

서독에서 공산주의 연구의 권위로 인정받는 G. 바르취(G. Bartsch)씨는 早期공산주의 출현의 서구적 배경으로써 근세초기의 農民叛亂과 宗教紛爭 그리고 英·仏의 市民革命등에서의 過激派의 진로를 探索했고 또 현대 유럽공산주의가 민족적 아니 민주적인 성격을 띄는 實例를 Tito, Dzilas, Imre Nagy, Dubcek, Garavdy Havemann, Fischer, Kolakowski 등등의 개혁공산주의적 제창에서 찾고 있다. 註2)

오늘날 공산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주류를 해명함에 있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가 Bernstein, Kautsky의 수정노선과 Rosa Luxemburg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노선, 그리고 Buharin의 추종파, 유고의 독자노선, 레닌주의가 낳은 스탈린주의가 1956년의 격하 선봉을 겪고 난 후 다시 대두된 네오 스탈린주의 그리고 지금의 서구공산주의(유럽공산주의)에 이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Trotzism 그리고 또 중국의 Maoism, 큐바의 Fidelism 등으로 세분하지만(예컨대 Wolfgang Leonhardt의 견해), 필자는 이를 Bolshevism, Titoism, Trotzism으로 大別하여 오늘날의 동서구공산주의의 흐름을 개관하려 한다. 왜냐하면 위의 3대 이데올로기가 지금 사실상 유럽의 공산주의에 커다란 이념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볼셰비즘은 1917년의 혁명후 공산주의의 국제조류를 이끌어 온 러시아적인 공산주의 이념이다. 지금 유럽공산주의는 러시아적 조

註2) G. Bartsch, ebenda, S.7.

직형태 (불쉐비즘) 를 이탈하기 시작했지만 1920 ~ 30 년대는 유럽 공산주의의 불쉐비즘화가 크게 거론되었었다. 불쉐비즘은 레닌에서 시작하여 스탈린을 거쳐 말렌코프에 이르렀고 또 후르시초프를 거쳐 지금의 브레즈네프에 이르는 동안 소위 러시아 공산주의의全體像을 그려내고 있다. 산업혁명을 체험했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서구 사회의 사회주의화를 시도하는 서구공산주의는 저 불쉐비키의 모델이 오늘의 서구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하여 거부하지만 서구이외의 여타 지역에서는 저 불쉐비키 모델이 지금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시범이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불쉐비즘은 공산주의 사조를 그려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류인 것이다.

레닌의 후계권 쟁투를 에워싸고 스탈린에 의해 패배당했기 때문에 Trozskism 은 오늘날 공산권에서 野的인 세력이 되고 말았지만 노동자의 평의회제도 (Rätssystem) 를 통해서 참된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는 Trozskism 은 소련공산당의 관료체제에 反旗를 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 Trozskism 은 유고의 노동자 자치행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지금 서구공산주의에도 노동자 경영참여의 민주화를 에워싸고 적지않은 이념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Titoism 은 1948년 유고가 코민포름을 탈퇴하고 脫소화 경향에 들어서면서부터 출현한 것인데 소위 유고 사회주의의 독자노선이라는 Titoism 의 특징은 「노동자 자치행정」에서 잘 들어난다. 유고이외의 다른 공산국가에서 Titoism 을 추종하는 나라는 없으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Titoism의 장점을 받아드리고 있는 나라는 적지않다.

필자의 보는 바로는 위의 3대 이념이 지금 유럽공산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소련은 서구공산당의 脫社会化 경향을 막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름아래 통일된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전개를 중용하고 있지만 서구적 여건에 적응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서구공산당이 결코 소련의 무마책에 굴하지 않을 것 같다. 근래에 동구공산권의 동정을 보면 불가리아와 체코는 소련의 입장에 서서 유럽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폴란드와 동독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고 유고와 루마니아는 서구공산주의의 이념과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 방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헝가리는 유럽공산주의가 내건 이념노선을 지지하면서도 서구공산당의 투쟁방법이 통일된 세계공산주의 운동을 저지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의 2장에서 동서구공산주의의 주류로써 불셰비즘, 티토이즘, 트롯츠키즘을 들이켰고, 3장에서는 동구사회주의의 특이한 國策을 설명함에 있어 유고의 독자노선,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 및 체코의 중단된 개혁공산주의를 例証했다. 그리고 유고, 루마니아 및 헝가리가 지금의 유럽공산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아울러 설명 시도해보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유럽공산주의가 불원한 장래에 공산주의의 서구형 모델을 유형화할 것이 분명한데 이가 앞으로 모스크바와 어

떠난 관계에 놓일 것이며 또 서구 자체내에서 한편으로는 보수세력, 다른 한편으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대결하여 어떻게 유럽의 정치 판도를 변형시켜 나갈 것인가가 자못 큰 관심사이다.

2. 東歐공산주의의 主流

東歐공산주의와 西歐공산주의(一名 유럽공산주의) 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다음 4 가지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는 코메콘(COMECON)이 형성되어 소聯 및 東歐圈만의 경험 및 지역적 유대가 공고화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후루시초프가 20 차 당대회를 기해 "스탈린 격하운동"을 선언함으로써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을 自招했다는 점이며, 세째는 1956년의 헝가리 혁명당시 무참한 군사적 억압을 가했고 또 동혁명 지도자들을 처형했다는 大國主義의 무자비성이며, 넷째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전하여 西歐諸國간의 역사적인 반목이 점차 해소되어가는 조짐을 보였다는 사실 등이다.

그렇다면 위의 4 가지 요인이 통일적인 세계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어로 작용하기 까지 공산주의의 주류가 2 차대전을 전후해서 어떻게 변모해 갔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학자인 볼프강 레온하르트(Wolfgang Leonhard)는 공산주의의 주류를 해명함에 있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베른슈타인(Bernstein), 카우츠키(kautsky)의 수정노선과 로자·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노선, 그리고 부하린(Buharin)의 추종파, 유고의 독자노선, 레닌주의가 낳은 스탈린주의가 1956년의 격하 운동을 당하고 난 후 다시 대두된 베오 스탈린주의 그리고 지금의 서구공산주의

(유럽공산주의)에 이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로츠키즘(Trotskyism) 그리고 또 중국의 Maoism 등을 낳았다고 大別하지만^{註1)} 필자는 本論稿에서 東西歐의 공산주의의에 큰 영향을 미친 볼셰비즘(Bolshevism), 티토이즘(Titoism), 트로츠키즘(Trotskyism)의 三大山脈을 추적하여 지금의 東歐공산주의를 해명해 보려 한다.

가) 볼셰비즘

볼셰비키주의자라고 하면 오늘의 소聯을 전적으로 통용되는 공산주의의 모델로 보고 또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聯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시 볼셰비즘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공산주의의 국제조류를 이끈 특이한 러시아적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련방내에 소위 소련공산주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련적인 노선을 특징 지우기 위해서, 즉 모스크바가 정치적인 또는 최소한 정신적인 중심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지금도 볼셰비즘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공산주의를 논의함에 있어 볼셰비즘의 개념을 묻는 것은 지금은 유럽공산주의가 러시아적 조직형태를 이탈하기 시작했지만 1920년대는 유럽공산주의의 볼셰비키화가 당당히 거론되었고 또 여지없이 동기구하에 조

註1) Siehe W. Leonhard, Die Dreispaltung des Marxismus
(마르크스주의의 세분열)
Düsseldorf/1970

직화되었기 때문이다. 불셰비즘의 基底를 보면 그 개념속엔 5개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즉 레닌에서 시작하여 스탈린을 거쳐 말랭코프에 이르렀고 또 이에서 다시 후르시쵸프를 거쳐 브레즈네프에 이르는바 이것이 또한 러시아공산주의의 全體像인 동시에 그 지도적 인물들의 전모를 설명해준다.

이들 다섯의 이름이 쇠사슬 처럼 얽혀 있지만 그들간에는 물론 차이점은 있어서 불셰비즘을 굴곡있게 출현시킨 것도 사실이다.

10월의 몰락, 코민테른의 창립 그리고 소련방공화국의 성립등을 레닌 혼자서 공로로만 들릴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가 소련방 건립 자임에는 틀림없다. 이 네가지의 기초위에서 스탈린은 당시 총서기장으로서 그의 막강한 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레닌의 墓前에서 선서한대로 그가 공산주의 인터내쇼날을 해체했지만 소련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짜고 또 그 국가를 에워싼 방대한 위성권을 형성함으로써 그의 권력과 그의 영향력 행사의 頂點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나 소聯史의 발전과정에서 그 후계자중의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첫 후계자인 말랭코프는 한국전쟁을 끝마쳤고, 중공업 우선주의를 시행했으며 민중의 소비욕을 무마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그가 헝가리와 체코의 제개혁 세력을 지원하고 난후엔 결국 후르시쵸프에 의해서 실각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헝가리의

Imre Nagy는 한동안 말랭코프와 신의가 두터웠으며 또 체코에서

는 Barak 이 말렌코프를 지지했었다. 註2)

저때에 말렌코프를 뒤이은 후르시초프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었다. 그 이유는 볼셰비키당에 대한 소련국민의 신임을 얻고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소련의 체모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한편으론 스탈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내외정책을 참신하게 개혁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저때에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의理想을 실현시켜보려 했고 또 동시에 현대 산업사회적 발전책을 힘차게 추진하려 했었다. 그리하여 그의 지도하에 초안된 새장령은 '61년 10월 22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이는 인민공사와 산업사회적 원리사이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 모순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국가와 혁명"이라는 레닌의 책자에 의해서 드러나있던 것이지만 후르시초프는 이를 차인하면서도 1980년까진 소위 완전한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註3)

결국 추측컨대 이것은 현실정치에 실망한 소련국민이 그들의 기대를 2000년대 이후에로 돌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후르시초프는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미리 못박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탈린을 격하시키는데 용기를 가졌고 스탈린이 남긴 제도의 외형을 변혁할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안보 정책을 역전시키

註2) Vgl. G.Bartsch, a. a. o., S. 42

3) Der 20. Kongress der KPdSU, in OSTEUROPA, Heft 3/
1956, S. 205 f.

고 대부분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해체하여 범치국가적 바탕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년간에 걸친 후르시초프의 관용추세를 제압하려 했던 적대 클럽에 의해 억눌리고 말았다.

후르시초프의 제시책을 불적에 그는 헝가리에 대해선 강경책을 썼지만 폴란드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썼다. 1955년 5월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을 인정하고 또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정권이양론을 내세웠으며, 1958년말 중공의 인민공사에 대해 제한을 가한 것들은 모두가 유럽공산주의의 흐름에 있어 큰 의의를 갖는 발생사들이었다.

결국 스탈린의 통치체제를 거부함과 동시에 동·서구 공산주의를 모두 그 교조적인 동결상태에서 풀어 놓으려 했던 것이 후르시초프의 정책이다. Togliatti는 소련의 20차 당대회에서 돌아온후 러시아적 공산주의 유형은 더 이상 확고히 유지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註 4)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은 COMECON의 도움을 얻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엘베」까지 통일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르시초프의 계획을 不信했었다. 그후 「중소분규」로 말미암아 중소의 견실했던 유대가 끊어지자 몇개의 유럽공산당들은 동분규의 그늘에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두드러지게 확대해 나갔다. 즉 알바니아가 동블럭권을

註 4) G. Bartsch, a.a.o., S. 43

이탈했는데 이 분열은 사실상 이미 모스크바와 벨그라드와의 분류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공산체제하에서 계속 전파된 소련내의 소위 일부 불법적인 자본주의를 뿌리 뽑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새로운 공산주의 주류를 주름잡으려는 투쟁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그의 過失이라면 “소련의 주도권과 소련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라는 소위 스탈린의 유산을 이어 가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중에는 실패했다는 데에 있다. 즉 그의 이 잘못이란 1948년에 일어났던 운동 즉 우리가 동구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 때문이 아니고 그 자신의 개인의 약점에 있었던 것이다.

1964년 10월 그 권좌를 이어 받은 브레즈네프는 그의 선임자인 후르시초프보다는 좀 다른 상황에 있었다. 그는 그 자신의 권위를 통용시키기 위해서 스탈린 뿐만아니라 후르시초프의 권위까지도 타도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다. 브레즈네프는 후르시초프에 의해 단절된 “소련 공산주의”라는 역사의 지속성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족했다. 그 선임자가 “개인숭배시대”를 했던 것은 이것은 다만 스탈린의 과오와 불신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1971년 5월 “게오르기 소련공화국” 창립 50주를 맞아 브레즈네프가 행한 연설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는 스탈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집단 지도체제의 단행에도 역시 언급했었다.^{註5)}

註5) G. Bartsch, a. a. O., S. 44

지도적 기능을 갖는 자리의 로테이션원리 같은 것은 유고로부터 이어 받은 소위 "후르시초프주의"의 잔존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또 평화공존 이념도 준 혁명적인 것의 하나로써 철회되었었다. 그의 지론인 제한 주권론을 가지고 브레즈네프는 체코에 있어서의 무력 침공을 정당화 했을 뿐만 아니라 유고와 루마니아의 독자노선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도 역시 철회하므로써 국제공산주의의 통일성은 겉으로나마 모스크바의 주도하에 다시 놓여졌었다. 註 6)

브레즈네프는 1969년 6월 세계공산당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로써 제공산당의 "행동통일" (Aktionseinheit) 을 내세웠지만 지금 공산당의 분열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현실문제가 되어있다.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행동통일이 가끔 논의되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동연설 이후 볼셰비키 노선은 우파 수정주의(Titoism)와 좌파 수정주의로 분열되어 그 한계가 뚜렷해 졌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지금 사실상 그들 만이 행동통일 원칙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볼셰비즘의 제요인은 위의 다섯 지도자를 거치면서도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위에 그 主軸을 두고 있다. 레닌은 스탈린보다도 훨씬 마르크스주의적이었고 또 스탈린은 말렌코프보다 더 했다. 후르시초프는 티토사상을 좀 받아드리면서 그의 수완을 발

註 6) G. Bartsch, a.a.O., S.44

휘하여 좀 과감하게 모방했고 또 이를 러시아의 상황에 맞추어서 역시도래 보았었다. 스탈린은 볼셰비즘 그 자체에서 그의 단일적인 조직 원리를 발전시켰는 바 이것은 레닌의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로부터 그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제외한 것이었다. 註7)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의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그 일반론을 계속 주장했고 마침내 국가공산주의적인 경향을 유도해 냈었다.

이 경향이 후르시초프 때는 약화되었으나 그 후계자 대에 와선 다시 되살아 났었다. 1969년 세계공산주의자 회의에서 브레즈네프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떠한 형태이었던 간에 사회주의 건설의 국가적 통제책으로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역설했었다. 註8)

그러나 맹목적인 스탈린주의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들이 모두 볼셰비키주의자 일 수는 없다. 그들은 지금 거의 빠짐없이 北平이나 Tirana 편으로 몰려서 힘을 못쓰고 있다. 그래서 볼셰비즘은 지금 스탈린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거부는 피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볼셰비즘은 평화공존론의 제거는 피하면서도 후르시초프에 대한 비판은 가하고 있다.

註7) G. Bartsch, a.a.O., S.45

8) Breschnew-Rede auf der kommunistischen Weltkonferenz vom Juni 1969, in: Sowjetunion heute, (1969년 세계공산당대회에서의 브레즈네프의 연설), 12/1969, S.7 der Beilage.

그러나 그 반면에 브레즈네프는 그 선임자가 행한 레닌론의 수정을 다시 정정하기도 했다. 즉 브레즈네프치하에서 死者 숭배를 통한 개인 숭배는 없어졌는데 이의 정치적 의의라면 레닌의 권위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체제의 제구범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후르시초프도 이미 시도한 점이었지만 당 전립자의 수정주의 이론을 제수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던 것이 결국 브레즈네프대에 와서 비로서 레닌의 정치적 유산이 잘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컨대 지금의 불쇄비즘은 죽은 레닌에 의해 이룩된 그 신비적인 기초위에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즉 레닌의 정신적 유산이 잘 승계되는 바탕위에서 국제공산주의의 통일성을 재현코저 하는 것이 지금의 불쇄비즘이다. 물론 겉으로나마 레닌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다른 주류들도 역시 확세해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은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불쇄비즘이 밝은 앞날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아마 3차대전만이 새 조류를 낳아서 제공산당의 비상공동체라는 이름아래 재통일을 이룩할 수 있지않나 생각된다.

불쇄비즘이 어떻게 전파되었던가를 추적해 보면, 유럽공산당의 대부분이 아직도 불쇄비키 노선에 서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모스크바에 종속되어 있던 속성은 점차 대두되는 새로운 운동에 저해요인이 되어 있다. 1968년의 체코 강점이 일었을때 22個 西歐공산당중에서 17個 공산당만이 체코強点

을 논평했으나 그중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운 공산당은 불과 7個 공산당에 不過했었다. 註 9)

물론 어떤 공산당도 모스크바와 아주 밀착되어 있지는 않다. 東歐내의 불쉐비키당에서도 적지않은 수가 모스크바와는 다른 노선을 거널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불쉐비키가 획책하는 정치전략을 보면 그들은 지금도 근로자를 계속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어 간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팽쇼주의 세력이 재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그들은 회랍같은 나라는 팽쇼주의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보고 또 서독같은 나라는 “제국주의적 유럽”의 총본산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적 제국주의가 모택동 추종자나 트로츠키주의자 및 티토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제국의 자유화를 시도한다고도 보고 있다.

불쉐비키 공산주의가 그 중점을 아직도 전유럽 대륙에 두고 있는 것이 그들 유럽 정책의 主目標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택동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를 제외한 제 공산당의 행동통일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를 포함하는 공산주의자의 행동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의 규합 방법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경제적인 독점, 신식민주의 팽쇼주의등에 반대하는 소위 평화를 위한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이 네가지 타개 방법

註 9) H. Brahm, Der Kreml und die CSSR 1968-69, (크레믈린과 체코 1968-69), Stuttgart/1970, S.74 f.

으로써 엘베강 以西 여러나라의 대중 행동을 선동하고 있다.

서유럽에 대해 소련은 지금 그 자신이 평화 열강임을 자처한다. 그리고 또 소련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동시 해체를 재의 하면서 하나의 非核지대, 쌍방의 군축 그리고 2차대전의 결과로서 책정된 경계선을 계속 보장할려는 소위 집단 안보체제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구라파에 대해서는 소련은 또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구사하기 위해 제한 주권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소련은 COMECON 국가의 규합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는 동구권의 긴밀한 상호 유대를 증용하고 있다. 물론 소련 공산당은 그들의 지도권요구를 간접적으로 내세울 뿐이다. 이념적으로는 모든 다른 공산국가가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단계에 놓여 있을때 소련만이 공산주의에로 이행해가는 그 첫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불세비즘의 정치전략과 그 계획은 모두 소련의 외교정책을 주축으로 기획·구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Titoism

티토주의자라고 하면 개개 공산당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공산주의에로의 독자노선을 내세우고 또 초민족적인 지도적 중심부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자를 말한다. 즉 동노선의 특징은 벨그라드가 바로 그 정신적 주축이요 티토를 그 상징이라고 보는데에 있다. 결국 이 노선의 특징은 정치적인 종속성도 없고 또 어느 특정한 인물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티토

주의의 중점은 바로 “자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티토주의 基底는 무엇인가를 보자. 그 시발점은 모스크바와의 분쟁이 시작되고 난후 1950년 “노동자 자치행정”으로 들어갔던 유고혁명이었다. 이 노동자 자치행정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20년대의 러시아와 능히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모델이다. 즉 볼셰비키모델과의 차이점이라면 유고공산당이 시초부터 이미 그 혁명중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유고혁명은 민족해방 전쟁과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인 시민전쟁이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동혁명은 군사분쟁으로 인해 분할 점령된 국정 상황하에서 진척되었다.

그 추진세력은 바로 공산당이었고 또 방대한 빨치산군대가 그 추종세력이었다. 戰時인지라 동당의 정치국은 사실상 군의 참모부로 전환했었는데 그 안에서 정치적 군사적 지도의 통일성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고혁명이 러시아혁명과 구별되는 것은 유고혁명에는 노병평의회(勞兵)의 바탕이 없었다는 점에 있다. 즉 인민위원회와 민족해방 위원회가 소련인의 역할을 이양받았는 바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초부터 우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고혁명은 점령된 상황에서 勞兵運動없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더러 유고자체내의 여러민족간의 심한 경쟁속에서, 특히 크로아치아인과 세르비아인의 반목사이에서 발전되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공산당은 하나의 통합세력으로

서 지속되었던 것이 바로 유고의 특색이다.

그리고 또 유고 혁명은 오랜 동안 소련의 저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그것은 러시아혁명보다도 더 폭넓게 발전하여 마침내 그들은 자력으로 집권에 이르렀다. 즉 소련군대가 벨그라드해방에 참여하기 이전인 1943년에 이들은 이미 집권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유고혁명은 당초에 그 중심지가 없었으며 모스크바와 벨그라드의 분쟁속에서 분단부분의 중심지가 생겼던 것뿐이다. 이것은 마치 1919년~1923년간의 러시아의 당내 반란 상황과 비슷했다. 유고는 저 때에 서구공업국가를 목표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냈는바 이것이 동구세국에겐 하나의 과도적인 것이었지만 하여튼 러시아적인 것 보다는 더 용이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다.

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적극적인 평화공존사상이 대두되었고 또한 군사조약의 폐지가 제창되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시초부터 러시아의 것 못지않게 범국민적으로 번져나갔다. 그리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및 오스트리아의 케른텐(Kärnten) 지방까지 번진 이 유고혁명의 여파는 마침내 발칸연방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1953년과 1954년에 Tito와 Djilas 사이에 쟁투가 벌어져서 유고 당 지도의 통일성이 깨져서 벨그라드에는 두개의 다른 기본 경향이 생겼다. 그 하나는 티토의 가까운 동조자인 Kardelj 지도하에 공산주의자 동맹이 일당체제의 초석을 재확립하려는 노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Praxis"

라는 학술지의 정신적 지도하에 직업 黨기관원을 통제하고 또 유고國 밖에도 집단적 자치행정을 시행시켜 공산당을 존립시키려한 노선이다. 결국 티토이즘은 유고내에서도 두개의 변모를 가졌으나 이는 나라 밖에서도 존중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공동 기반은 노동자 자치행정인데 만약 공산주의자 동맹이 그들의 주거지역에서 그 조직 기반을 다시 공업경영으로 옮길 경우에는 노동자 평의회가 공산당의 세포조직을 통해서 활약하여 소련에 있어서와 같이 정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System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두 기본경향의 대립·악화는 유고슬라비아 밖에까지 티토이즘을 파급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실무자들이 개인적인 추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티토이즘이 어떻게 전파되었나를 보자. Kardelj 노선에서 보는 티토이즘은 독자적인 민족적 특색을 살려서 공산주의를 이룩하려는 시도인데 이것은 40년대 말에 이미 정통파 독일공산당도 시도한 바 있으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독일에서는 공산주의 이론가인 Wolfgang Leonhard 지도하에 “독립독일노동자당”(Unabhängige Deutsche Arbeiterpartei)이 한동안 실존했었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상당히 티토를 추종하는 경향이었고, 또 벨그라도도 역시 그러한 클럽들이 많으므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국제조직을 가지려고 했던것도 사실이다.

스탈린의 死去 후 특히 소련공산당의 20차 당대회후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져서 티토이즘은 커다란 매력과 신장력을 가지고 발전했

었다. 1956년 러시아 공산주의 모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혁명적인 결과로써 폴란드와 헝가리에 폭동이 일어났을때 소련은 군대를 개입시켜 이를 진압했었다.

그러자 티토이즘은 다시 西歐로 기선을 돌려서 좀 다른 노선을 지향했는바 이것은 그 추종자들에게 보다 많은 행동영역을 허용한 것이라서 마침내 벨그라드와는 아주 다른 독립노선을 지향했었다.

이 새로운 노선의 영향을 받아 1959년 덴마크공산당이 분열되었다. 註10) 즉 오랜동안 그 당수직을 맡고있던 Axel Larsen 이 소련의 정책노선을 이탈하고 좌파 사회주의자와 우파공산주의자를 묶어서 사회주의 인민당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1966년의 선거에서 同당은 총투표수의 10.9%를 얻으므로써 종래 공산당이 얻은 0.8%에 비해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 註11) 그래서 이것은 서구에 있어서도 티토이즘이 볼셰비즘보다 더 커다란 찬스를 갖는다는 것을 예시한 것이었다. 그러자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에서도 사회주의 인민당이 건립되었고 종래의 공산당에서 많은 수가 동사회주의 인민당으로 몰려갔었다.

그러나 덴마크 사회주의 인민당은 1967년 12월 다시 분열되어 지금은 2개의 인민당이 존재하고 있다. 註12)

소련의 20차 당대회후 유고공산당과 이탈리아 공산당이 밀착되

註10) G. Bartsch, a.a.O., S.50

11) G. Bartsch, a.a.O., S.50

12) G. Bartsch, a.a.O., S.50

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1964년 1월 그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모든 형제당은 독자노선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다달아야 한다고 했었다. 註 13) 이리하여 티토이즘은 서구에서 점차 전파되었고 그 두더지작전을 통해서 마침내 볼셰비즘의 영향을 제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티토이즘에 있어 티토를 그들의 위대한 영도자로 보는 나라는 유고외에는 아무 데도 없지만 유럽 공산당 내부에서 이것이 방대한 자치운동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 화란,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San Marino 등등 도합 7개의 서구 공산당이 티토노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 註 14) 그리고 동구에서는 루마니아가 유고를 시범삼아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물론 루마니아가 동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은 국가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소련의 통합계획이 들어난 후 부터였다.

협회의 의미에 있어서 티토이즘은 스칸디나비아의 제사회주의 인민당과 서구공산당하의 자치주의자들 그리고 루마니아의 특이한 노선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노동자의 자치행정이 아니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티토주의자나 또는 그 실천가들은 서구의 "신좌파" (Neue Linke) 와 동구의 사회혁명적인 인텔리겐

註 13) Weltkommunismus 1964, in: OSTEUROPA, Heft 7/8/1964, S.495f

14) G. Bartsch, a.a.O., S.50

차에 손을 뻗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영향력은 별로 강한 것이
 아니지만 동구의 학생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 유럽이 사회주의에로의 도정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라고 볼적에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 제정당이 거의 대
 등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 하나가 사회주의를 혁명적인 것으로
 선전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를 발전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그들 공동의 敵은 소위 Etatism인데 이것이 지금 서구에서는
 국가자본주의 (staatskapitalismus) 이고 동구에서는 국가공산주의
 (Staatskommunismus)로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서구
 를 막론하고 바로 사회주의적 발전을 저지하는 경향이다."^{註 15)} 라고
 보고있는 것이 유고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전을 저지하는 모든 요인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려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즉 이것은 동구에
 있어서 소련의 주도권에 反하는 투쟁을 뜻하며 유럽 공산주의 내
 부에서는 2개의 경제공동체에 벨그라드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비교적 밀접한 접촉을 가질
 뿐더러 주요 동료정당과도 각별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의 사민당 대표단이 자주 벨그라드의 초청을 받는 이유도 바
 로 여기에 있다. 유고의 티토주의자들은 "노동자 자치행정"에서
 참된 공산주의의 기본조건을 보고 있으며 또 현재의 유럽이 혁명

註 15) G. Bartsch, a.a.O., S.51

적인 방법이 아닌 발전적인 방법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Kardelj 주의자들이 공산당의 업적없이 자치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반해서 티토주의의 실천가들은 그 요인을 분리 취급하고 있다. 즉 그들의 보는 바로는 유고슬라비아에는 당과 국가기구의 지도역할에서 나타나는 Etatism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Stojanovic는 Etatism이 무너질려는 노동자 평의회가 활발히 움직여서 먼저 각기업체가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선 국가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장차에 있어서는 사회혁명이 정치혁명보다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註 16)

공산당이 노동자에 종속되므로써 당의 관료화가 노동자의 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티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티토주의 실천가들의 견해는 소련공산주의의 관료화가 그들 나라 유고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요인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소련을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보지않고 새로운 계급분화에 따른 Etatism적인 국가라고 보고 있다. 註 17)

註 16) S. Stojanovic, Der etatistische Mythos, Vom Stalinismus, in: "Jugoslawien denkt anders" (스탈린主義의 국가통제적 신비성), Wien/1971, S. 163ff.

17) S. Stojanovic, ebenda, S. 178

다) Trozkyism

Trozky 주의자라고 하면 소련이나 다른 공산국가들을 노동자 국가로 보되 참된 평의회제도 (Rätesystem) 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反관료적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자들이다.

Trozky 주의의 기본 바탕은 러시아 혁명에 Trozky가 참여했다는 것, 스탈린에 반하던 그의 투쟁계획이 확고한 것, 그의 순교자적 인 정치생명 그의 이론과 그리고 제 4차 인터내셔널 등등이다.

1917년 7월부터 1928년 10월까지 Trozky 주의가 볼셰비즘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지만 이 두 노선의 차이를 확정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Trozky 주의에는 옛날의 反레닌주의가 反스탈린주의에 뒤져 있을뿐더러 Trozky 주의는 별로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침묵속에 묻혀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레닌의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가 스탈린의 관점에서 단 일적인 언행의 일치로 변했고 또 그 세력권내에서 동원리를 위반했을 때엔 사형만은 면하도록 했던 오늘날의 볼셰비키주의자에 반해서 Trozky 주의자들은 민주적인 억양 (Akzent) 을 훨씬 더 높인다. 즉 그들의 제조직은 각분야별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결국 공산당내부에서 많은 분열을 낳았지만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 나름으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대신 Trozky 주의자들은 볼셰비키주의자와는 달리 각

분파의 自治 대신 중앙집권적인 세계적 당(Weltpartei) 만은 확고히 전지하려 들었다. 제 4차 인터내셔널이 제 3차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었지만 이는 하여튼 러시아 중심주의를 초극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인종의 평등이라는 것을 실현했었다. 註 18)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공산국가들을 판단하는데에도 있다. 볼셰비키주의자에게 그들은 혁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지만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것이나 또는 수정주의적인 것과는 좀 달랐었다. 때때로 그들은 유고나 중국 및 알바니아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쓸 권리가 없다고까지 했었다.

1969년 세계대회의 주요문서속엔 14개의 공산국가에 한해서만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이 쓰여있다. 이에 대해서 Trotsky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변증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을 해명하려면 Trotsky의 "반역한 혁명"이라는 저서까지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련에 있어서 사회화된 생산력과 시민적인 분배형태를 구별했었다. 즉 사회주의적인 바탕은 하나의 관료적 "보나파르티즘"적 건설이 이식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러시아 혁명의 업적을 지니고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시민사회의 분배형태가 자본주의적인復古에 치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상반된 경향이 지금 소련공산당에 깊이 침투되어

註 18) H. Brahm, *Trotz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
(레닌後繼를 에워싼 트로츠키의 鬪爭), Köln/
1964, S. 204 ff.

있다. 소련공산당이 혁명적인 업적을 확고히 인정하고 있는한 그가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련공산당이 만약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속에서 분배형태를 전환시킬려고 한다면 이는 곧 반동적이고 또 부고적인 것이 되고 말것이다.

1936년에서 1938년에 걸쳐 Trotzky의 추종자들카 예전의 동맹 동지들을 거세하려는 모스크바의 反혁명 公判이 있었을때 Trotzky는 내적개혁을 통한 소련사회의 평화적인 변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관료적 肥大性向을 배제하는 정치혁명을 권장했었다. 註19) 이러한 뜻에서 Trotzky 주의자들은 지금도 역시 “反관료적 혁명”을 운운한다.

Trotzky 주의자들의 이론적인 기본은 영구혁명론이다. 그들은 오늘날 그 내적인 관점을 외적인 관점보다 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다시말하면 민족혁명에서 국제적인 혁명으로의 주장 보다도 관료적인 데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의 과도적인 것을 덜 내세우는 것이다.

그들 교양지의 하나를 보면 “세계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민족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의 불균형한 발전 때문에 하나의 연쇄를 형성한다. 이 각양각색의 제민족혁명은 결국 전체 과정에 연결된 그 순간적인 것이다. 단 하나의 전체성이란 사회주의 세계혁명이 라는 전체성속에서의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註20) 라고 되어

註19) H. Brahm, ebenda, S.29 ff.

20) G. Bartsch, a.a.O., S.53

있다.

트롯츠키理論은 결국 공업 프로레타리아의 關鍵役割을 강조한다. Maoism 이나 Fidelism 이 가난한 농민의 혁명역량을 동원하려는 데에 반해서 트롯츠키주의자들은 “인더스트리·프로레타리아”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바로 이 점에서 Trotsky주의자들은 볼셰비키나 티토노선과 일치된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공존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권하려는 데는 반대한다. 결국 Trotsky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교두보라는 것이 있다고 보질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 뿐만아니라 원칙 없는 지지 때문에 브르자 혹은 봉건적인 정권이라고도 불리우는 중국까지도 제국투쟁의 대상에 집어넣고 있다. Trotsky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이 중국에 있어서의 관료적 권력구조를 타도하길 바랐다. 그러나 저 혁명의 결과는 모택동파가 당과 국가를 재건한 것이었다. 오늘날 Trotsky주의자들은 그들이 중국에 있어서 모택동 추종자이든 혹은 劉少奇를 동정하는 노동자와 지식인이든 간에 反관료적인 반대파의 중심세력으로써 左派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즉 혁명적인 Trotsky당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註 21)

Trotsky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면을 위배한 모택동

註 21) H. Brahm, Pekings Griff nach der Vormacht (列強에 치달는 北京의 試圖), Köln/1966, S. 51

을 잘 비난하기도 한다. 모택동은 결국 이념을 중시하고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는 스탈린주의의 분류를 더 격화시킨 주관주의자라고 그들은 비판하고 있다.

큐바혁명은 오랜 동안 제 4 차 인터내셔널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되었다. 왜냐하면 제 4 차 인터내셔널은 Fidel Castro를 오늘날 까지도 브레즈네프에 비해 위대한 무혈혁명의 지도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그들은 그를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큐바경제가 발전을 못하는 채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이유를 평의회제도의 과오와 큐바 스탈린주의자들의 영향 및 고위 당직자의 사회적 특권 등에서 찾고 있다.

“큐바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위원회의 기초를 가진 광범위한 민주적 혁명 구조인 것이다. 이 제위원회는 민중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또 何時라도 폐지될 수 있는 참된 권력기관이라야 한다. 달리말하면 평의회 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행정과 국가의 재조직이 문제인 것이다.”^{註 22)} 라는 말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장을 잘 해명해준다.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Trotsky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형의 평의회 제도를 제기업에 집어 넣는 것이었으나 아직도 그 전체적 규범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티토를 노동자 민주

註 22) G. Bartsch, a.a.O., S.54

주의의 발전에 있어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한 자라고 보고 있지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극단적으로 右旋回했다는 점과 특히 평화공존론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註 23)

Trotsky주의는 결국 국제적 규범에 입각해서 세밀한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다른 공산당 노선의 비판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 그 이론가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말을 꽤 조심스레 분석하며 그들이 자신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적 후예라고 자칭하고 있다. 註 24)

Trotskyism의 전과과정을 보자. 1938년에 결성된 제4차 인터내셔널은 소련이 하나의 「노동자 국가」로서 앞으로의 계속발전을 위해 정치혁명을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소련문제」를 에워싸고 한 동안 분열되었으나 1963년 그들 추종자의 대부분이 다시 한데 뭉쳤었다. 그런데 제4차 인터내셔널이 계속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하는 많은 트로츠키派중에는 서유럽에 만에도 7개 분파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공산당연맹,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적 혁명자 클럽, 영국의 국제 마르크스주의적 클럽, 덴마크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서독의 국제마르크스주의자 클럽, 오스트리아의 공산당 연맹, 그리스

註 23) V. Rus,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revolutionären Bewegung (革命運動의 制度化), in: "Jugoslawien denkt anderes", Wien/1971, S.201

24) H. Brahm, Trotz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 Köln/1964, S.210 ff.

의 국제공산당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註 25) 제 4 차 인터내셔널과 유대된 위와같은 正會員黨과 아울러 벨지움,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서독 등지에는 또 여타의 Trotsky 클럽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世界黨(Weltpartei)의 제분파는 아니랄지라도 그들은 서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들은 또 그들간에 갖는 제 회의에도 모두 참석하고 있다. 1970년 11월 21 ~ 22 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Kongreß der revolutionären Avantgarde"에는 19개의 서구 제국이 대표를 파견했는데 그 중 4대 대표단은 프랑스(참가자 1,300명), 벨지움(1,000명), 영국(300명), 서독(280명) 등이었다. 註 26) 그런데 특이한것은 同會에서는 서구 공업국가에서 참석자의 대부분이 왔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Troztkism은 어찌보면 하나의 산업공산주의(Industriekommunism)라고 말할 수도 있다.

同브뤼셀 회합에는 또한 동구라파에서도 야당적 공산주의자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비밀리에 참석했었다. 전유럽적 규모로서 Trotsky 주의자들이 맨처음 회동한 것은 1969년 12월 27일에서 1970년 1월 3일까지의 스위스 회합이다. 同會에서는 제 4 차 인터내셔널의 추종자들이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 등지에서

註 25) G. Bartsch, a.a.O., S.55

26) G. Bartsch, a.a.O., S.56

왔으며 모두 그들 나라 혁명정당의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시했었다. 註 27) 체코에서는 두브체크하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당”이 건립되었는데 1971년 3월 후사크는 이들을 법정 처리했었다. 註 28) 왜냐하면 이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체코 強점에 반하는 완강한 저항운동을 벌렸기 때문이다.

브라셀에서는 동구라파에 대한 특별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동위원회는 행동강령의 기본적인 것을 초안하기도 했다.

소련에 대한 다른 공산국가들의 솔직한 태도는 소련이 그들의 仇敵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1970년 6월 그리이스의 Trotsky주의자 Psaradelli가 형무소를 탈출하고 불가리아로 도주했을 때 불가리아 국가보위성은 회람에 반공적인 군사 독재정권이 서 있는 데도 Psaradelli를 그리이스 경찰에 인도했었다. 註 29) 이같은 事例는 마치 스탈린이 소련에 망명했던 독일공산당원들을 히틀러의 Gestapo에 인도했던 것을 연상시키되 自國內의 野党的인 Trotsky派를 얼마나 敵對視 하는가를 엿보게 하는 좋은 실례이다.

Trozkism의 전략을 보면 1969년 4월에 열렸던 제4차 인터내셔널의 세계대회이래 저들은 서구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재활과 소련 및 동구에 있어서의 스탈린주의의 분류 및 악화 경향을

註 27) G. Bartsch, a.a.O., S.56

28) G. Bartsch, Die Wiederbelebung des Trozkismus in Osteuropa (東歐에 있어 트로츠키즘의 復活) in: OSTEUROPA, 9/1972, S. 681 f.

29) G. Bartsch, a.a.O., S.56

크게 논의하고 있다.

Trotsky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팻쇼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노동자 운동이 패배한후 프롤레타리아에게 의연히 혁명적인 지도 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세계 혁명의 기본적인 문제로써 제일 심각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새로운 Avantgarde의 핵심이라고도 보았다. 그러나 Trotsky 주의자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편적인 지도기구를 형성할 수가 없었다. 유럽대륙에서는 프랑스만이 커다란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을뿐 동구라파에서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조직화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가까운 목표라면 서구에 있어서 대중 정당을 만들고 동구에 있어서는 엘리트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련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치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Trotsky당을 만드는 문제다. 그러나 엘베江 以東의 主敵은 크레믈린의 관료주의이고 엘베강 以西의 主敵은 서구를 흔들어 놓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Trotsky주의자들의 발전에는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어있다.

동구라파에 대한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시 된다. 제기업에로의 노동자 평의회 창설, 노동자 자치행정의 형성, 평의회 자치적인 중앙집권화, 민족적인 노동자회의의 소집, 관료주의의 억압을 피하는 계획경제의 유지등이 바로 그것이다. Trotsky주의자들은 공산주의적인 관료주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한다. 왜

나하면 그들은 자발적인 퇴진이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기관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인상되었던 기관원 급료를 노동자의 노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주려한다. 註 30)

그러나 서구에 대한 행동강령은 동구의 것보다는 훨씬 유동적이다. 즉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어떻게 다시 심화되며, 혁명과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노임투쟁과 공업경영에 참여 하는 혁명적인 노동자 자치행정간의 중재적 타개책으로써 저들은 노동자의 조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즉 노동자 자신이 기업과 생산을 조정하게 되어야지 결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만으로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Trotsky 주의자들에게는 구조적 개혁을 제창한 이탈리아 공산당의 강경정책이 바로 수정주의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프랑스 공산당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본으로 말미암은 노동자 조정의 회피에서 정치권력을 에워싼 투쟁까지의 계급투쟁을 고취하는데 이 투쟁은 무장한 민병을 가진 프로레타리

註 30) G. Bartsch, a.a.O., S.57

아의 독재에로 이어져 가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Trotsky 주의자들은 노동대중에 뿌리박기 위한 發動力이 학생운동에 있다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이 학생운동이 일반적으로 모든 공산주의적 노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고, 또 동시에 이 학생운동에서 새로운 젊은 Avantgarde가 육성되어 그들 旧世代와 규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여러 공장에 있어서 정치적 음모를 위해 혁명적인 충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노동청년을 동조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아니 다른 공산주의적인 제당에 있어서 Trotsky 주의자들은 이 개혁적인 기구의 분파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세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또한 “파업위원회”와 같은 자력으로 선출된 기구에 정착되어 있고 Trotsky당의 起點을 만들기 위해 모두 새로이 통합되고 있다.

브라셀회의에서는 전유럽적인 主要求로써 유럽의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의 분리 시도가 재의되었었다. Trotsky 주의자들은 그들 세력을 전대륙에 뻗치기 위해서 개개의 나라에서 그 정치권력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중요한 「스테지」로써

그들은 소련에도 제 4 인터내셔널의 지부를 들것을 요구했다. 註 31)

또 지금 그들 확세의 커다란 기대를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다 걸고 있는 판국이다.

이러한 一聯의 상황진전을 감안할때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지금 그들의 확세를 위해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註 31) G. Bartsch, a.a.O., S.58

3. 東歐共產主義의 實態

가. 國策의 實際

1) 유고의 독자노선

유고는 5개 민족으로 이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對內外的 충돌은 실로 세계의 어느 민족 분류에 못지않게 가혹하고 무참했다. 지금의 「유고主義」가 출현되기 이전 저들의 對內外的인 충돌이 얼마나 처절했으며, 또 저들이 異民族으로부터 받은 학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추적하여 現 유고정치의 問題點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014年 東「로마」제국이 지금의 유고지역 일대를 석권했을 때 당시의 「東로마」황제는 1만 5천名の 戰爭捕虜中 1百 50名을 除外하곤 전부 두 눈알을 빼버렸으며, 남은 1百 50名도 한쪽 눈을 멀게 하고서 다른 한쪽 눈만을 가진 외눈뱅이 1百 50名이 그 많은 捕虜들을 引率하여 귀향토록 한 적이 있다. 註1)

이 때에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불가리아의 「사무엘」황제는 그 참상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그대로 졸도하여 죽어갔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14세기 이후 同地域에 터키통치가 행해졌을 때도 터키인과 세르비아인의 諸軋轢항쟁은 모두 피로써 얼룩진

註 1) 加藤雅彦; 東ヨ-ロッパ, 1970, P:65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라면 1809年 세르비아
인 「S. 신제리치」는

화약통을 끌어안은 채 敵兵들 속에 뛰어 들어 그들과 모두
같이 散化해 버린 것이다. 同 事件의 처벌에 있어 터키는 叛徒
9百52名の 복을 잘라, 그 목들로 탑을 쌓아놓고 세르비아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지금 유고의 수도 벨그라드에서 南으로 3百키
로를 가면 「니슈」라고 하는 작은 邑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해골塔」이 바로 1809年의 처절했던 그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한다. 註2)

이와 같은 外人虐政에서 거칠어진 때문인지 발칸인의 기질에는
성급하고 과격한 면이 있다. 1914年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자도 세르비아인이었고 1934年 방불중인 「알렉산더」 유고국
왕 암살도 크로아치아의 極右派 청년이 행한 것이다.

특히 크로아치아의 極右派 團體인 「우스다시」(Ustaše)는
2차대전중에 많은 세르비아 正教徒와 回教徒, 그리고 공산주의자
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2차대전중 유고인 死傷者는
도합 1百70萬에 달하는바 그중의 半 以上은 「나치」의 소행이
아닌 국내 南슬라브族 상호간의 교살행위였다. 註3)

이렇던 국내 諸民族의 不和가 對獨軍 유격전을 통해서 해소되고

註 2) 加藤雅彦; 上掲書. P. 66

3) 加藤雅彦; 上掲書. P. 67

나아가선 유고국민 전체가 「빨치산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당초의 「세르비아」적 애국운동이 소위 범국민적 국론통일운동으로 변하고 마침내 反나찌통일전선이 된 것이다. 그러자 연합군도 同빨치산을 원조하게 되었고 원래 공산주의자를 母体로 발족했던 同빨치산조직에 非공산주의자들도 합세하므로써 유고의 숙명적인 민족간의 대립도 점차 극복되기 시작했었다. 그리하여 同빨치산이 때로는 공산군과 협력하여 노련한 게릴라戰을 펴서 「나찌」로부터 점차 국토를 해방시키자 1942年 11月엔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또 그 다음 해의 11월엔 「유고 反파쇼 人民解放評議會」가 組織되었다. 그리하여 동 評議會는 마침내 旧王國을 타도하고 연방 국가 건설을 결의했으며, '45年 11月엔 「티토」대통령하에 「유고 연방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이다. (유고는 1963年에 그 國名을 「유고 社會主義 연방공화국」이라고 개칭했음)

2차 대전중의 同「빨치산精神」, 즉 외세에 반하는 유고주의는 戰後 스탈린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심분 發揮되었다. 「유고」의 정치학자 V. 데디에르 (Dedijer) 교수는 양국의 분쟁 원인을 史的으로 잘 해명하고 있다. 즉 그는 同 분쟁원인을 소련의 유고에 대한 침략적인 제경향에 돌리는 바, 양국간의 不和는 戰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전쟁중에 싹텄다는 것이다.

즉, 1941年의 유고 혁명시에 소련의 지도자는 유고인의 봉기를 참된 유고해방을 위해 중용한 것이 아니고, 소련의 利益과 大러시아정책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지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43年 유고의 反팻쇼 인민해방평의회가 망명정부의 불승인과 국왕의 귀국금지를 선언했을 때에 스탈린은 그에 반대했다는 것도 들고 있다. 註4) 이같이 해서 뿌러진 不和의 씨는 전후 공산점령군의 유고에 있어서의 奉行 때문에 유고 국민의 반감을 삼으로서 더욱 자랐다는 것이다. 그 위에 1946년에 소련이 제의해온 소련·유고合資会社案은 유고 경제를 사실상 소련에게 예속시키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註5)

그런데도 1947년 2月 유고는 두 件의 合資会社設立案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또 '48年 1月 유고는 그들 외교에 대한 소련의 간섭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협정문에 조인할 것을 강요당한 바 있다.

그리고도 또 동년 3月 소련은 유고주제 군사고문단을 철수시켰다. 이와 같은 一連의 압력적인 거래가 행해지자 유고中央委員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꽤 좋아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나라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서한을 낸 바 있다. 註6)

이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소련은 마침내 동년 6月에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코민포름」에서 유고를 除名했으며, 그 후 자국은 불론이러니와 동구제국에게도 對유고경제

註 4) V.Dedijer, Stalins verlorene Schlacht (스탈린의 패전), Wien/1970, S. 52

5) V.Dedijer, ebenda, S. 80 ff.

6) V.Dedijer, ebenda, S. 125

관계를 단절토록 했다. 이같이 해서 유고는 동구권의 고아가 되자 그의 진로는 뻔한 것이었다. 즉, 안으로는 정치, 경제체제를 개혁하면서, 밖으로 동구아닌 타지역으로 그 외교를 펴 나가야만 했으니, 이것이 낳은 것이 바로 「독자적인 사회주의」요 「적극적인 中立主義」요, 또한 「非同盟정책」이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되 「독자노선」에 입각해서 국가건설을 시도하는 유고의 실제정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자.

유고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一黨獨裁를 전제하되, 가능한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社會化(이 나라에선 國有는 아니다)를 전제하되, 가급적 자유시장 경제적인 방법을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고는 58年 4月 제7회 공산당대회에서 新綱領을 결의·채택했넌 바, 이것은 마치 유고사회주의의 憲章과 같은 것으로서, 저 독자노선의 기본이념이 총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결안이다. 이 싯강령이 공포되었을때 각국 공산당은 이를 수정주의라고 호되게 비난했다. 이 강령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途程은 다항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註7) 즉 사회주의의 목표는 同一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발전해 가는 그 도정에는 각국의 경제발전, 정치구조, 전통과 인습 및 국민의 역사의식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註7) R. Supek u. B. Bosnjak.
Jugoslawien denkt anders.
Wien/1971, 93 ff.

발전 템포나 형식이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求心點이 同운동을 지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다. 즉, 사회주의 諸國의 黨 상호간의 관계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註8)

셋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기능주의적인 제도적 융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있다. (註9) 즉 근래의 자본주의는 산업 국유화와 국자투자의 증대 및 개인자본의 제한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순이 격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이같은 Positiv한 변화는 東歐제국의 사회주의적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민족혁명운동 및 사회민주당의 역할 등을 무시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는 공산당에 의해서만이 실현된다고 보는 종래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同綱領은 黨의 지도적 역할도 부정하고 있다. (註10)

즉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절대적 독점을 보편적인 불변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教條主義에 반하면서 사회주의의 至上目標가

註 8) J.G.Reißmüller, Jugoslawien - Vielvölkerstaat
zwischen Ost und West (유고 - 東西사이
의 多民族國家), Düsseldorf, / 1971,
S. 139

9) J.G.Reißmüller, ebenda, S. 140

10) J.G.Reißmüller, ebenda, S. 155

개 개인의 행복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同綱領은 以上과 같은 네 가지로써 독자노선의 일반적 이념을 밝힌 외에도 「유고사회주의」의 구체적인 체제내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저 나라 사회주의의 中核인 「노동자 自主管理」라든지 「노동자 評議會」 및 「경영위원회」등이 유고체제의 특색인데, 이를 좀더 자세히 논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고 헌법 제8조를 보면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고 되어 있다. (단, 農地는 個人農이 인정되어 있기에 전부가 사회소유는 아닌 것임). 이러한 생산수단의 실제과정에 있어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양도되고 또 운영까지도 위임되어 있는 바, 이것이 곧 「노동자 자주관리」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同評議會는 「경영위원회」라는 기획전문的小委員를 구성하여 기업실무에 임하게 하고있다. 그런데 기업의 최고기관인 동「노동자평의회」의 구성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15名에서 1百20名이며 그중 75%가 생산현장에서 선정되고 있다. 註11)

또 노동자평의회의 主任務를 보면 노동자평의회는 첫째, 製品의 종류, 수량 및 가격 등을 결정하고, 둘째, 수익의 분배방법을 결정하며, 셋째, 기업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조달을 숙의하며, 넷째, 고용노동자의 해고 및 신규고용 등을 논의하게 되어있다.

註 11) K. Adenauer Stiftung, Jugoslawien im Umbruch (轉換속의 유고), Mainz / 1973, S. 13

그리고 또 경영위원회는 첫째, 노동자평의회가 행하는 諸般事를 기획·제외하고, 둘째, 노동자평의회에 결정을 구체화해서 기업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註 12)

이와같이 노동자 자주관리 하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업활동에 직접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은행 융자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관여를 받게 마련이다.

유고의 기업활동이 위와 같이 당국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면 훨씬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자주관리하의 이러한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면과 비슷한 현상도 있다. 즉,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상호경쟁을 하기도 하며, 외국무역 부문에서는 유고의 2百 여개의 무역회사가 외국상사와 직접 거래할 뿐더러, '66年 3月 이후로는 수출에 의해 획득한 외화의 25%까지를 그들의 보유액으로써 수입을 위해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무역실태와 거의 비슷하다. (註 13)

그리고 독자노선 체제하의 私企業과 個人營農제도도 주목거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고에서는 종업원 5人以下의 私企業

註 12) K.Adenauer Stiftung, ebenda, S. 15

13) K.Adenauer Stiftung, ebenda, S. 17

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個人경영 업체들이 아주 증대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식료품점, 이발소, 양화점, 목공소, 자동차 수리업 및 택시업등은 의화획득을 위한 당국의 자금 지원이 있기에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註 14)

그리고 저 나라의 個人營農실황도 좀 특징이 있다. 유고 헌법 21조를 보면, 農地의 私有가 10 헥터까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영농의 실상은 10 헥터 이상도 허다하며, 不毛 산악지대가 많은 「몬테네그로」공화국 같은 곳에서는 私有地를 아주 25 헥터까지 허용하고 있다. 註 15) 원래는 유고도 45년의 정부수립 당시 농지개혁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를 시도했었지만, 保守層 농민의 비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53년의 재개혁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를 중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 농토의 88%가 個人 농지이며, 國營農場이나 협동조합農場 등 소위 집단농장 소유지는 불과 12% 밖에 되지 않는다. 註 16) 동 集團農場에 종사하는 농민은 전농민수의 4%이며, 그들의 營農地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12%이지만 동 集團農場의 수확고는 全수확고의 22%를 점유한다. 註 17) 이것은 즉 농경기술의

註 14) K.Adenauer Stiftung, ebenda, S. 26 f.

15) 加藤雅彦; 上掲書, P. 76

16) J.G.Reiβmüller, ebenda, S. 195

17) J.G.Reiβmüller, ebenda, S. 196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집단농장의 생산고가 個人農보다도 우세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유고는 이와같이 독자적인 제도와 생산수단으로써 후진성 탈피의 합리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나라이지만, 저 제도하의 저 나라는 그 나름대로 큰 고민도 안고 있다.

유고의 독자적인 사회주의는 50년대 초기이래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으로부터 수정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고사회주의를 비난하는 東歐국가도 없어졌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自國의 여건에 알맞게 기능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獨自路線, 즉 공산당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당의 독재를 배제해가고 있고, 또 통일된 경제계획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면서도 효율적인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권장하고 있는 저 나라의 독자체제는 동구의 자유화를 위해 분명히 선구적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저 체제와 그의 指標인 「유고주의」는 지금 아래와 같은 難題를 안고 있다. 첫째, 西歐式 사회민주주의에 비할 때 하나의 左派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을 쫓고 있는 저 나라는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실업자 문제와 노동자의 파업문제등을 안고 있다. 20 만이라는 유고노동자가 지금 西歐 各國에서 就役하고 있는가 하면 국내에는 30 만의 실업자가 있다. 註 18)

註 18) J.G.Reißmüller, ebenda, S. 165

그리고 특히 노동자의 노임인상을 위한 「노동정지」(이 나라는 파업을 「노동정지」라 부른다) 문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事例로서 제도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註 19) 그리고 또 同독자노선의 정치적인 未洽點이랄까, 또는 長點이라고 한다면 공산당답지 않게 당기구 자체가 유고에서는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 나라에는 일찌기 「질라스」의 党独裁制 否定을 비롯하여 「미하이로프」의 複數政黨制 제창 등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티토의 自意가 아닌 他意에 의해서 중앙위가 재편성되고 있는 實例들은 역시 독자노선이 내건 대로 당기구가 민주화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註 20)

둘째로 티토의 중앙정부는 대전중의 「빨치산 정신」을 바탕으로 전유고인의 국민적 통일 의식을 꾸준히 고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内部統一이 이룩되지 않은채 많은 정치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유고의 제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암적 요인은 역시 저들의 숙명적인 민족대립이다. 北部인 「크로아치아」의 유럽적 생리, 남부의 「오리엔트」적 후진성, 중부인 세르비아의 강인한 排他性 등이 유고슬라비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다. '71年末을 전후한 티토의 對「크로아치아」탄압책 註 21) 은 민족대립의 再燃경향을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註 19) Vgl. K. Adenauer Stiftung, ebenda, S. 25

20) J. G. Reißmüller, ebenda, S. 157 f.

21) S. Stankovic, Die Kroatische Krise (크로아치아의 분규) in: OSTEUROPA, 6/1972, S. 411 f.

세제는 유고 외교정책의 향방이다. 유고가 내건 「적극적 中立」과 「비동맹 정책」은 東西 냉전시대에는 알맞는 정책이었으나, 동서 대땅뜨의 오늘에는 맞지 않을 뿐더러 「네루」, 「수카르노」, 「나트세르」없는 「티토」는 외로워 졌다. 특히 근래에 와서 유고의 독자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몇몇의 서구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국가일뿐, 제3 세계의 신생국가들이 非同盟정책에 미온적이고 보배 유고의 중립외교가 활발하지 못해졌다.

위와같은 대외정책의 침체를 의식함인지는 몰라도, 유고는 최근에 와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다. 즉 독자노선을 계속 확고히 다져가면서도 사회주의 제국간의 상호협력을 최촉하는 국제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 비근한 예로써 1976年 4月 유고공산당 서기장 S. 돌란취 (Dolanc) 는 스페인공산당의 S. 카릴로 (Carrillo), 이탈리아공산당 지도위원 G. 파제타 (Pajetta) 프랑스로공산당 서기국원 G. 플리손너 (Plissonnier) 등과 함께 벨그라드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제문제」를 논의했는데, 사회주의 국가간에 同等과 不干渉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국제적 협동이 불가능함을 주장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세 사람도 역시 「一元化的 統一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과 내일엔 각 黨의 권리와 자주성의 존중없이는 통일이 있을수 없다」 註 22) 는 일치된 견해를 피력했었다.

註 22) Südosteuropa, 5/6/1976, S. 102 f.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때 세계공산주의속에서의 「유고슬라비즘」 즉 「티토이즘」은 그 이론과 국가실제 (Staatspraxis) 면에서도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티토」없는 중립외교, 서방측의 큰 지원없는 유고 경제등을 가정해 보면, 저 나라의 내일이 꼭 밝을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2)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

루마니아 공산당의 권력구조에는 兩大山脈이 있었다. 그 하나는 戰時중에 소련에 망명했던 모스크바파이고 다른 하나는 본국에서 내내 감옥생활을 한 소위 국내파이다. 즉 모든것을 소련의 지령에 의거 운영, 시행하려는 모스크바派와 자력으로 黨을 건설해 가려는 国内派는 國策 시행의 기본방침에 있어 당초부터 대립되어 있었다. 1950年 무렵에는 모스크바파의 파우켈, 루카, 게오르게스쿠, 보도나라스 등 4인이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게오르규 데지 (Gheorghiu Dej) 를 「보스」로 한 국내파와의 당내 암투가 꽤 심각했었다. 註 1)

그러나 이 무렵에 국내파에 유리한 외적 변화가 일었으니 그것이 바로 東歐전역에 번졌던 「反유대인 운동」이었다. 즉 52年 11月 「체코」공산당 서기장인 R. 슬란스키가 티토주의자라 해서 처형당했는가 하면, '53年 1月에는 크레믈린의 의사

註 1) 加藤雅彦, 上掲書, P. 90

9 명이 소련 군부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소위「醫師共謀事件」이 발생한 것이다. 註 2) 그런데 同사건의 주동자가 모두 유대계라 해서 東歐 각처에서 「反유대 운동」이 일자 루마니아의 국내파에게 모스크바파 去勢를 위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52년 5월 국내파가 파우켈 파를 추방하고 주도권을 장악한 이래 루마니아는 非스탈린化 운동과 관계없이 줄곧 국내파가 이끄는 教條的 민족공산주의를 쫓고 있는 것이다. 註 3)

'65년 3월 G. 테지가 死去한 후 지금의 N. 초세스쿠(N. Ceausescu)가 루마니아공산당의 제1人者가 되어 있는 바 초세스쿠는 과감한 실천가로서 선임자 테지가 펴놓은 루마니아의 자주노선을 더 힘지게 넓혀가며, 全世界에 民族共産主義의 「모델」을 과시하고 있다. 註 4) 결국 루마니아가 이와 같이 일찌기 자주노선을 걸기 시작한 데는 모스크바파를 거세했고, 또 '58년 7월에 루마니아 주둔의 소련군이 철퇴함으로써 소련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同요인 못지않게 더 중요한 다른 하나의 요인은 루마니아공산당이 천후에 맨 먼저 착수한 것이 경제건설을 위한 기술교육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술자

註 2) 加藤雅彦, 上掲書, P. 90

3) M. Huber, Grundzüge der Geschichte Rumäniens (루마니아 史 概要), Darmstadt / 1973, S. 144 f.

4) M. Huber, ebenda, S. 152

와 경제전문가가 육성되어 저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즉 저들의 경제 발전이 다른 이웃들보다 순조로웠기 때문에 국민은 안정된 생활향상을 누리면서 출근 데지 政權을 지지했던 것이다. (註5)

루마니아가 어떻게 경제건설을 행했는가를 보자.

하나의 동구권이라고는 하지만 공업건설의 바탕이 나라마다 모두 일률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동독이나 체코에 비하면 루마니아공업의 바탕이란 아주 빈약했다.

大戦前 1930 년대의 루마니아의 공업인구는 불과 10.2 %밖에 되지 않았다. (註6) 이것은 저 나라가 거의 순수한 농업국임을 말해준다. 그더번 루마니아가 1951 년에서 1965 년까지 15 년에 걸쳐 공업생산의 평균성장률을 年間 13.3 %까지 올렸다는 것은 경이적인 발전「템포」가 아닐 수 없었다. (註7)

'59 年에서 '65 年까지 공업생산 성장의 $\frac{3}{4}$ 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통해서 이룩된 것을 볼 때, 서방측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이 크게 작용했음은 말할나위 없거니와, 이를 그토록 밀고 나간 루마니아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註 5) 加藤雅彦, 上掲書, P. 95

6) 加藤雅彦, 上掲書, P. 92

7) H.Höhmann, Die Wirtschaft Osteuropas zu Beginn der 70er Jahre (1970 年代의 東歐經濟), Stuttgart/1972, S. 205

동독이나 체코와는 달리 공업국의 바탕이 全無상태였던 저 나라가 거의 無에서 출발하여 서방측의 기술과 최신형의 「플랜트」를 도입해서 거창한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루마니아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저 백성의 능력인 것이다. '59년에 시작된 6개년 계획의 공업성장율은 연간 14.4%인데, 이는 '56년의 공업생산의 2.24 배요, 戰爭前 '38년의 9.5 배였다. 註 8)

'66년에 시작된 제 3차 5개년 계획도 11.6%라는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 註 9) 그리고 또 다른 한편 '70년의 국민소득은 '59년의 것보다 60%가 늘었고, 또 실질적인 임금은 35%가 증가되었다. 註 10)

중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화라는 면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경제는 비약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 나라의 내일이 꼭 밝지는 않다. 앞서서도 이미 논한 바 있지만, 전쟁전의 저 나라는 인구의 8割이 농업에 종사한 전통적인 농업국이다. 토양도 비옥할 뿐더러 天候도 농업에 알맞는 지역이라서 옛부터 곡물과 농작물의 수출국이였다. 그러나 저 나라가 중공업 건설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업을 등한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공업생산의 성장율에 비해 아주 낮다.

註 8) H.Höhmann, ebenda, 205

9) H.Höhmann, ebenda, S. 205 u. 212

10) H.Höhmann, ebenda, S. 213

예컨대 1968년의 저 나라 공업생산은 전쟁전의 14 배인데
반해 농업생산은 불과 1.8 배밖에 되지 않았다. (註 11.)

물론 농업기술의 발전도 전쟁전에 비해 전혀 없는 편은 아니었
다. 소위 농업의 기계화 정책에 의해서 「트랙터」를 비롯한
제농기구가 모두 국산품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난 1963年
같은 해엔 동구공산국가가 거의 「카나다」의 곡물을 대량 수입했
는데도 루마니아만은 오히려 소련에 40 만톤을 수출했었다. (註 12)

다만, 저 나라의 농업을 동독, 체코, 헝가리에 비하면 천연조건의
혜택을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灌溉사업에 뒤져 있고, 또
다른 공업 분야보다 덜 권장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70년의 봄 도나우江의 大洪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
등은 저 나라 관개사업의 미흡함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그래서 저 나라는 지금 다른 분야보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신의 기술 「플랜트」등을 西方에서 대량 수입할 수 있는 外貨사
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큰 약점이다.

그러나 低調한 농업생산면을 제외하고는 重工業이나 여타산업
부문은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註 11) H.Höhmann, ebenda, S. 213

12) H.Siegert, Rumänien heute (오늘의 루마니아), Wien/
1966, S. 36 f.

소련을 제외한 유럽 제 2의 석유 산출국인 이 나라는 그 풍부한 석유 자원에서 화학공업을 비약 발전시켰다. 「게오르규 데지」의 석유화학공장, 「푸로에시다」의 정유공장, 「크라요바」의 비료공장, 「사비네디」의 화학섬유공장 등이 저 나라 화학공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註 13)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 70년에 완공하여 연간 7백만톤을 생산하는 「가라자」 제철공장도 빼놓을 수 없는 대기업이며, 71년부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電子공업 (「오토메이션」과 「컴퓨터」관리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도 크게 기대되는 산업이다. 註 14)

루마니아 국책의 向方을 평가해 보자. 중·소분쟁을 이용해서 루마니아가 그 독자노선을 펴간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노선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중·소분쟁의 발단은 평화공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두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평화공존론과 더불어 스탈린 格下운동이 시작되던 때부터 공산권 내부에 「지도권 분쟁」이 싹텄다. 그후 60년 6월 제 3차 루마니아공산당 대회에 외빈으로 참석한 중·소대표들은 그 자리를 빌어 상호비난의 砲門을 연 바 있다.

註 13) H.Siegert, ebenda, S. 246 ff.

14) H.Siegert, ebenda, S. 246 ff.

즉 소련 대표인 후르시초프가 「중국인은 近代전쟁의 의의를 모르는 超教条主義者」라고 비난한데 이어, 중공 대표였던 彭真 北京시장은 「중국인은 抗日戰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近代戰의 實相을 세계의 어느 국민보다도 잘 체험한 국민」註15) 라고 응수함으로써 루마니아의 同대회가 수라장화 되었다. 이리하여 공개화된 중·소분쟁은 同年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공산당 대회에로 이어졌는데, 중공대표 鄧小平 서기가 「세계 공산당의 지도적 黨인 소련공산당의 존재는 인정한다.

그러나 黨 관계에 있어서 소수가 다수를 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각국의 黨은 제각기 독립적이기 때문이다.」註16) 라는 反소연설을 하므로써 중·소분쟁은 거듭 공공연해졌다.

중·소의 대립이 이같이 심각해지자 루마니아는 양대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中立을 지키면서 '63년 초부터 간접적인 對중공 접촉을 시도했다. 즉 '63년 3월에 루마니아는 중공의 우방이었던 알바니아에 대사를 파견했고, 또 동년 5월에는 중공과 새로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註17)

註 15) C.Sporea, Der Dritte Kongreß der Rumänischen

KP., in: OSTEUROPA, 11/12/1960, S. 811

16) K.Mehnert, Peking und Moskau (北平과 모스크바), in:

OSTEUROPA, 11/12/1960, S. S. 733 f.

17) Rumänien(Mai-Okt.1963) in Chronik, in: OSTEUROPA,

6/1964, S. 469

그리고 동년 6월 동독의 울브리히트 70회 생신을 계기로 열린 동구수뇌회담에도 루마니아의 G. 데지 제 1서기는 불참했었다. 註 18)

또 동년 7월 중·소분쟁에 관한 중공측의 해명서인 「25개項」을 다른 동구제국은 소련의 지령에 의해 공개하지 못했으나 루마니아만은 그 全文을 자국의 신문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64년 3월에는 중·소대립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루마니아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했는가 하면, 그후 중공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루마니아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철저한 중립을 지켰었다. 註 19)

'69년 6월 모스크바의 세계공산당 대회에서도 중공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추방하고, 소련의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루마니아는 同회의 개최자체를 반대했는가 하면, '68년의 <체코 강점>이후에도 루마니아는 소련의 위압적인 태도에 굴하지 않고 소련의 중공비난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註 20)

註 18) 加藤雅彦, 上掲書, P. 101

19) Vgl. H. König, Rumäniens Standort in der kommunistischen Weltbewegung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루마니아의 위치), in: OSTEUROPA, 2/1970, S. 83 und in: Osteuropa, 7/1972, S. A 469

20) Ceausescu: Kein leitendes Zentrum nötig (지도적 중심부는 불필요하다.), in: OSTEUROPA, 2/1970, S. A76

루마니아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양대국의 분규에 말려들지 않는
채 공산주의에로의 독자노선을 펴서, 소위 민족공산주의적인 복지국
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즉, 저 나라는 평화공존속의 사회주의
적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한가를 위해 주시해볼만한 「모델 케이스」
라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적 실태를 보자.

중·소대립에는 중립을 견지하면서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받아 들이지 않은 채, 서방과의 교류를 점차 더 활발히 했다는
것은 루마니아의 국력이요, 국책의 방향인 것이다. 동구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東블럭의 1개 소국인 그가 '69년 8월에
니스대통령을 초치하여 거국적인 환대를 한 것 등은 세계인의
耳目을 끈 거창한 일이었다. '64년 4월이래 이 나라는
한 민족국가의 권리를 선언하고 꾸준히 독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을 택한 저 백성의 底力과 꿈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자.

저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요인중 첫째는 아마 「라틴」민족이라
는 민족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63년 이후 저 나라의 「非러시아化 운동」은 표면화해서
러시아語와 그 문학연구기관인 「막심 고르기 연구소」를 부카레스
트대학의 「슬라브」문학과로 폐합했고, 또 제1외국어를 露語대신
仏語로 교체한것 등은 「슬라브」계의 지적·정신적 영향을
배제한다는 實証인 것이다. 註 21)

註 21) H.Siegert, ebenda, S. 104 ff.

그리고 루마니아의 관리들이 「민족의식은 이데올로기에 先行한다.」^{註22)}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나, 또는 소련, 체코, 폴랜드는 서방무역을 行하면서 왜 여타의 나라들은 서방교역을 못하느냐는 불평을 크게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저들이 슬라브족과 친근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註 23)}

물론 비약적인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서방접근만이 그 지름길이라고 본 實利追求 정책이다. 루마니아가 「코메콘」을 이탈한 후에도 계속 그 공업을 확장할 수 있던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서방과의 기술제휴와 교역에서 얻은 성과가 컸기 때문이다.

세계는 教條的 사회주의를 민족의 주체에 입각해서 실현하겠다는 점이다. 즉, 체코와 같은 개혁적인 向方도 아니요, 유고와 같은 개혁적이며 변환을 전제로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만 민족의 實利를 쫓아 동서 외교만을 신축성있게 구사하겠다는 정통과 사회주의에로의 定向인 것이다. 즉, 이념적인 면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독자노선이란 反소적이었던 「항가리의거」나 「프라하의 봄」과 같은 자유화 경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국경을 같이 하는 이웃인 데도 소련의 처루마니아정책이 관용적인 이유는 바로 루마니아의 이념노선이 정통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註 22) 加藤雅彦, 上掲書, P. 103

23) 加藤雅彦, 上掲書, P. 104

「체코 강점」이후에도 루마니아는 바르샤바조약군의 루마니아에서의 연습을 끝내 저지시킨 반면에, '76년 7월 처소우호 및 상호 원조조약 재체결은 관찰시켰다. 이것은 결국 초세스크의 신축성있는 외교가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위와 같은 민족 위주의 정책을 루마니아는 이론적으로도 합리화하고 있다.

지난 '76년 4월 루마니아의 < Lumea >誌가 「민족의 존속과 국제주의의 眞意」라는 테마를 다룬 논설을 보면, 공산권의 이론가들이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발전을 부정하고 있지만, 노동계급이 통치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한 민족이 균등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나 국민국가적 발전이 결코 국제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註 24)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들은 독특한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 '76년 2월 초세스크가 유고의 < Delo >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유의 개념을 보면,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不平等政治나 独裁政治를 배제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속, 또는 실현하려는 諸 민족의 시도인 것이다.

註 24) Patriotismus-Internationalismus, in: Wissen -
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4/1976,
S. 76 f.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식민정치를 폐지시키고, 諸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註 25) 라고 말했었다.

「진보는 전통에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없이 는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가 덧붙인 말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다.

3) 중단된 개혁공산주의와 오늘의 체코

1968년 8월「바르샤바조약군」의 무력개입이 있기전까지 동구권에서 모두 체코를 가리켜 사회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했다.

체코가 동구의 여타국으로부터 그러한 명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다.

첫째, 체코는 소련의 충실한 위성국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사회주의적인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비교적 높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黨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 및 반감을 적절히 억제·무마해서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은 민중봉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이유로서 체코는 공산권의 우등생이라는 칭찬을 받아가며 보수적인 국가발전을 계속 유지했었다.

註 25) Was ist Freiheit? (자유란 무엇이나?), in :
WD SUDOSTEUROPA, H. 3/1976, S. 62 f

총선에도 있었던 체코의 공산화 과정을 보더라도 동구의 여타제국과는 그 방법이 달랐다. 대개의 나라에선 주둔 소련군의 무력에 의해 거의 정권을 탈취하는 식으로 공산화가 추진되었지만 체코에서만은 그렇지 않았다. 즉, 그들은 소위 민주적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토록 조종해서 정권을 이양받았던 것이다. '46년 5월의 제1차 총선거에서 36%의 지지를 얻어 제1당이 되었고, 26명의 각료中 9명이 黨員으로써 이들이 각기 요직을 점하므로써 체코는 점차 親蘇경향에 들어선 것이다. (註1)

'47년 6월 체코정부는 파리에서 열린 「유럽 復旧計劃」(마샬플랜)의 회합에 참여코져 했으나, 스탈린의 불찬성 때문에 단념해야만 했고, 또 仏·체코 원조조약의 재체결도 포기해야만 했다. (註2)

체코의 정치가 이같이 左傾化할 때 체코공산당에게 무혈혁명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었다. 즉 '48년 2월 공산당이 프라하의 비밀경찰 간부를 증원, 전보하자 12인의 非黨員閣僚들이 世論에 호소하여 동조처를 저지할 목적으로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때에 고트발트수상은 베네쉬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모두 사표를 수리시키고 尙각료를 黨員출신으로 경질시킨 것이다. (註3)

註 1) 梅田良忠編, 東歐史, 1963, P. 394

2) 梅田良忠, 上掲書, P. 428

3) 梅田良忠, 上掲書, P. 429

이리하여 구출된 공산당정권은 '56년 이후의 非「스탈린」化 운동에도 거의 동요하지 않은채 '63년 무렵까지 사회주의 건설의 保守路線을 계속 지켜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는 계속 국가발전의 保守策만을 견지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야기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의식이 강한 슬로바키아인의 반발을 억제·무마하기 위해서는 一黨 중심의 중앙집권주의를 보장·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妙策이 있기 때문이다. 註 4)

'68년 1월 노보트니에 뒤이어 슬로바키아 출신의 두브체크가 黨제1서기였고, 또 지금도 후사크(슬로바키아계)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은 슬로바키아의 이탈을 막자는 민족정책적인 배려에서 이다.

1960년 체코는 新憲法을 제정 공포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소위 국호를 개칭했다. 그 이유는 동구권에 서 그들이 소련에 뒤이어 두번째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自負인 동시에 공산권의 우등생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자부와는 달리 60년대 초부터 체코경제의 침체경향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계획경제 체제의 취약점인 동시에 自由化물결을 일게한 轉機였다.

註 4)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18년의 共和國수립시에 人爲的으로 병합되었다. 言語, 풍습이 모두 다른 두부분은 역사적인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反目は 지금도 지속되고있다.

계획경제하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市場定着的 사회주의를 들고나왔던 체코의 실태를 추적해 보자.

奧洪帝國하의 보헤미아 王國시절에 이미 공업화를 이룩해 놓은 나라인지라 체코는 兩次대전을 겪은후에도 의연히 東歐第一의 공업국이였다. 그 위에 또 戰後의 공산정권이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중공업정책을 썼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지방에 기간산업이 화중되므로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업은 제법 平衡을 이루고 있었다. 총인구 1천 4백여만에 12만 8천평방킬로(서독의 약 半)의 小國이면서도 체코의 공업생산량은 1960년 현재 每人當 아래와 같은 비율을 보였다.

鐵鋼생산고가 세계 제 6 위요, 석탄은 제 9 위, 褐炭은 제 2 위, 「에너지」소비량은 제 3 위, 機械「플랜트」수출고는 제 8 위라는 순위이다. 註 5). 이렇던 체코의 공업생산이 '60년 초부터는 低調를 보이면서 製品의 質도 저하되었었다.

공업 성장율이 '60년의 12%에서 '61년의 8.9%, '62년의 6.1%, '63년의 2.2%로 떨어졌었다. 註 6)

註 5) Vgl. H.Höhmnn, a.a.O., S. 124

6) H.Höhmnn, a.a.O., S. 125

또, 수출면은 보아도 '60년에서 '63년에 걸친 4년동안의 수출상품고는 불과 34억이었고 또 다른 한편 농업도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註7)

이와 같은 체코의 경제不況을 보고 서방측의 언론이 계획경제 체제의 취약점을 지적·비판하게 되자, 체코 국내에서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개혁안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프라하工大의 경제학자인 세룩키(R. Selucky)씨가 「계획은 어디까지나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自己目的化해서는 안된다」라고 전제하고 <개인숭배>와 <계획숭배>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註8) 그에 뒤이어 「레부르」(H. Lefebvre) 교수는 계획경제란 저개발국의 경제실태에나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 체코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업국에는 同경제체제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소위 「체제 無用論」을 내세웠다. 註9)

註 7) R. Selucky, Reformmodell CSSR - Entwurf einer sozialistischen Marktwirtschaft oder Gefahr für die Volksdemokratien, (체코의 개혁모델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냐, 인민민주주의의 위험이냐.), Hamburg/1969, S. 31

8) R. Selucky, ebenda, S. 44

9) W. Leonhard, Die Dreispaltung des Marxismus, Düsseldorf/1970, S. 394

그리고 또 오타 시크 (Ota Sik)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는 소위 <市場定着的 사회주의> (Marktorientierter Sozialismus) 論을 펴서 마침내 「프라하의 봄」을 유도하는 先覺者役을 했다. 註 10)

그리하여 이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체코의 自由化는 이 때까지 동구제국에 그 類例가 없는 대규모의 것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정치 및 이념의 自由化에까지 번져갔다. 이러한 自由化 운동을 '66년의 체코인들은 종래 사회주의의 모델이 아닌 「人道的 사회주의」에로의 체코改革路線이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註 11)

개혁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던 체코공산당 수뇌는 오타·시크교수의 개혁안을 받아들였다. 즉 「시크」案에 따라 계획경제를 기본적으로 수정한 新경제정책이 '66년 5월의 제 13차 党大会에서 채택되자, 보수적인 党간부들은 궁지에 빠지고 그 대신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한 「리버럴」한 개혁파가 得勢하게 되었다.

註 10) D.E.Viney, Der Demokratisierungsprozeß in der Tschechoslowakei (체코의 민주화과정), in:EUROPA ARCHIV, 12/1968, S. 424 f.

11) F.Beer, Die Zukunft funktioniert noch nicht (미래는 아직도 예측을 불허한다), Frankfurt /1969, S. 277 f.

당의 권력구조에 이와 같은 변원이 일자 作家와 지식人 그리고 학생들도 自由化 요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67년에는 作家同盟에 대해 탄압이 가해지자 프라하의 대학생이 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사태가 이같이 악화되어갈 때 노보트니 第1書記는 소련의 지원을 구했으나, 소련의 태도는 吾不関焉이었다. 宗主國의 內政 不干涉 태도를 보자 10人으로 구성된 중앙위 간부회의 過半數는 노보트니를 해임케하고 두브체크를 선출하는데 찬성했다.

그리하여 두브체크의 등장을 계기로 [프라하의 봄]은 시작되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체코의 자유화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는 '68년 4월 체코공산당이 발표한 <行動綱領>과 동년 6월의 文인들이 내놓은 <2천語宣言>이 잘 입증해 준다.

同黨령의 내역을 보면 체코가 지닌 諸事件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삶에로의 욕구가 여실히 드러난다. 黨의 지도적 역할이란 독점적 권력의 장악만이 아니라는것, 黨의 목적이 非黨員을 차별 대우하면서 온天下를 지배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 市民民主主義가 독점하고 있는 諸자유는 부르좌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 등 모두 자유생활을 갈구하는 고귀한 내용이다. 註 19)

註 12) H. Brahm, Der Kreml und die CSSR 1968-69

(크레믈린과 체코 1968-69), Stuttgart/1970,
S. 19 f.

그들은 또한 공산주의에로의 途程에서 위와같은 諸자유를 依法 保障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다짐했다.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요 결의는 여론에 準하여 행할 것이며, 외국신문의 수입과 판매를 허용하고, 黨고위층은 정기적으로 記者會見을 갖고, 時事문제의 언급에는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 등, 종래의 공산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註 13)

그리고 또 헌법에 규제되어 있는 出入國 管理法를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외국에서의 長期체류 및 常住등을 法的으로 보장하겠다는 것도 다짐하고 있다. 註 14)

同행동강령에 뒤이어 나온 文人들의 <2천語 宣言>은 <행동 강령>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어떻게보면 宗主國 소련에 대한 挑戰文書같기도 했다. 예컨대 黨의 권력을 남용하여 不正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판과 데모와 스트라이크 등의 방법으로라도 항의하라는 호소는 분명히 공산당의 獨재를 증오하는 표현이었다. 註 15) 그리고 "외세가 우리 內政을 간섭할 때 우리는 무기를 손에 들고서라도 우리 정부를 지지하겠다" 라고 하고 있다. 註 16)

註 13) H.Brahm, ebenda, S. 21

14) H.Brahm, ebenda, S. 21

15) H.Brahm, ebenda, S. 35

16) H.Brahm, ebenda, S. 36

이 과격한 표현은 그들의 反蘇감정을 분명히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코의 사태 진전이 이같이 심각해지자 소련수뇌들은 「티르나」(Vcierna)와 「부라디슬라바」(Bratislava)의 두 회담을 거쳐 무력저지를 결의했다. 註 17)

自由化 저지를 위한 군사개입을 에워싸고 소련수뇌부에도 적지 않은 贊反이 있었다는 것이 근래에 조금 밝혀졌다. 註 18)

고위층의 상당수가 군사개입을 반대하는데도 소련이 체코를 強点한 것은 체코의 공산권 이탈을 阻止하는 것이 東블럭의 협력체제를 공고화하는 첩경일 뿐더러 나아가선 이것이 또한 긴장완화속의 東西 力關係를 平衡하는 「리얼 폴리틱」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人道的 사회주의에로의 自由化가 무력으로 저지되고 난후, 체코의 지도체제는 후사크를 위시한 新스탈린주의자(노보트니治下에서의 보수派 불명분자)들로 全面 개편되었다. 즉 후사크체제란 親蘇的 보수체제로서 소련의 관여와 조정이 용이하게 구사될 수 있는, 소위 半植民, 半自治的 過渡體制라고 할 수 있다.

'69년, '70년 두 해에 걸쳐各界의 숙청이 거듭되면서 후사크체제가 굳혀져 갈 때 「프라하」의 학생들은 「Sorry Tony」라는 밧지를 달고 다니며 노보트니時節에의 향수를 표시했다고 한다.

註 17) H.Brahm, ebenda, S. 53 f.

18) Osteuropa, 3/1977, S. A 182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리는 「날짐승을 싫어한다」라는 弄談으로 후사크를 조롱(Husak란 名詞의 뜻은 <오리>임)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自体보다도 외세 관여와 외군통치의 侍女役을 맡은 후사크體制에 얼마나 敵意를 품고 冷笑하는가를 알 수 있다.

'68년의 봄 두브체크 영도하에 체코의 민주화가 진전될 때에도 그들 청년 학생들은 그 자유화가 바로 西歐化이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두브체크가 뜻한대로 「인간에게 자유가 허용되는 개혁된 新사회주의」를 원했던 것이다. 註 19)

세계사의 各章을 보면 한 국민의 열망과 그 정신사조가 機構와 制度라는 外的 속박에 의해서 발전을 저지당하다가도 언젠가는 그 軛를 초극하고, 흔히 그 「콘티뉴이티」 즉, 지속의 원리를 되찾더라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

달리말하면 하나의 시작된 운동이 때로는 鮮明하게, 때로는 不透明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계속되는 것이 通例이다.

체코의 자유화도 평화를 그리는 현대인의 본능적 요구와 산업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른 「도그마티즘」의 탈피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저 운동은 필히 언젠가는 내부의 체제변동, 외부의 분열과정(공산세계의 3分5裂 경향을 뜻함) 등을 통해 또다시

註 19) D.E. Viney, a.a.O., S. 438

선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 아래의 글은 자유화의 모담블이 아직도 체코 각가정의 아궁이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준다.

1970년 국가 반역죄로 법정공판을 받은 자중의 한 사람인 오타. 필립 (Ota Filip) 씨가 <8.21 強点> 후 어느날 라디오를 통해 체코의 지식인 상황을 풀이한 내용이다. 同해설 내용은 '68년 10월 25일 서독의 「브레멘」(Bremen) 라디오 방송에 보도되었다. 「지금 우리들중의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주 「죽어버린 침묵」은 아닌 것입니다. 라디오 경청자 여러분! 우리의 이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나라 문학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체코異端者의 위대한 전통에 이어지는 우리의 이 소리를 여러분은 듣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합창단이나 称頌의 노래가 흘러 나오면 우리들은 그것을 따라 부르지 않고 다만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단자를 가지고 있는 限 우리는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프라하의 봄」이 사라진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후사크 (Husak) 하의 체코 정치는 개혁의 면모가 깨끗이 씻어지고 친소적인 旧 체제로 환원하여 諸발전의 템포가 아주 느린, 아니 거의 침체적인 小康상태를 유지해 오고있다.

중공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루마니아의 자유노선을 비방했고, 티토의 크로아치아 탄압에는 찬사를 보냈고, 서독과의 「38년 원협協定」의 無効化 협상에선 독선적인 태도를 취했다. 물론 소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은 채 그의 권좌를 굳히려는 후사크에게도 고충이 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 여론을 보면 체코를 強点했던 소련에게 체코의 혼란을 수습해 주었다 해서 감사를 표했던 사실, 두브체크를 배신한 점, 시민적 자유를 불신한 점 등 때문에 그는 지금 좋은 평가를 못하고 있다.

근래의 서방측 자료가 傍証하는 바에 의하면 昨今の 체코 경제가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의 체코 신문은 경영상태의 부진, 생산품의 품질 저하, 재고품의 증가, 건축업의 혼란, 경제사범의 점증 등을 가끔 보도하고 있다. 註 20)

그러나 이 보도는 위와 같은 침체된 경제현상이 소련을 시범으로 삼은 중앙집권적·관료적 지도체제에로 복귀한 데서 왔다는 말만은 시종 침묵하고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후사크는 자주외교의 폭을 넓혔다는 듯이 동구 제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물론 서독과의 관계개선, 對日 交易 증대, 싱가포르와의 국교수립 등을 이룩했지만, 주요한 외교결정은 지금도 중주국인 소련과의 협의하에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註 21)

註 20) Osteuropa, 11/1975, S.A 67-1

21) Osteuropa, 5/1975, S. 349 f.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자유정신은 지금도 엄존해 있고 또 그들의 「프라하의 봄」에 대한 향수는 대단하지만, 정치가 허용하는 제도적 자유없이 그들의 자유정신이 발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나. 서구공산주의에 대한 東歐圈의 見解

1) 유고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유고공산당의 지도적 이론가인 에드워드 카르델리 (Edvard Kardelj) 씨는 사라예보에서 발간되는 철학 및 사회이론지 「대화 (Dialog)」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공산주의를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발전과정 및 발생에 대한 전체* 라는 제목으로 그는 그의 소견을 밝혔는데, 유럽이 불려화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현정세하에서 서부유럽 여러나라의 노동운동은 예전에 비해서 온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노동계급은 그들 자기 사회의 부르주아 및 반동세력에 직면해 있을 뿐만아니라 완벽한 불려정책 및 군사체제와도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투쟁방식이 재래의 형태로써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있다.

서구의 여러공산당은 지금 현실로부터 억눌린 진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 불려화한 상황을 초극시키려는 민족세력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그는 대립된

동서블럭을 현실로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註 1)
카르멜리는 이러한 그의 관점을 거듭 자세히 밝혔는데, 서구공산당들은 블럭 반목의 무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민족의 자립적인 주체이어야 한다고 한다. 즉 그들이 자기 독립적인 길을 걷되 이 독자노선은 서구사회주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카르멜리는 유고같은 나라가 서구공산당과 항상 그 관점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해명했다. 즉 유고처럼 서구제국도 특이한 상황, 관심 및 투쟁 가능성에 입각해서 그들의 관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各個는 특이한 관심을 보편 타당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다른 나라의 관점을 Dogma로써 맹신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공산당은 그 어느 하나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않을 것이지만, 설령 시도한다면 그것은 同운동의 본질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카르멜리의 견해로는 시민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북수정당제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註 1) Eurokommunismus aus jugoslawischer Sicht (유고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4/1977, S. 111

카르텔리는 "사회주의적 실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논거"라는 토론에서 <정착화>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각국 정책의 정착화는 참된 사회주의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이것은 또한 동서간의 이념분쟁에 있어서도 특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구공산당들이 독립노선을 지닐려고도 또 불럭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채 독자적으로 계급투쟁을 감행하려 한다면 그들은 각국의 사회체제내에서 투쟁을 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본다.

카르텔리는 유럽 공산주의를 노동자 운동의 역사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있다. 마르크스의 창조적인 이념적 교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노선을 찾은 것이며, 유럽 여러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이 노선에 따라 모든 진보적인, 민주적인 세력과 유대되어 불럭없는 하나의 유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 한동안 그들 노선이 그 정착화 과정에서 불분명하고 동요되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이지 사회적인 의의를 논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진보를 에워싼 투쟁과정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또 이는 사회주의적 실제(Praxis) 과정 그 자체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운동에 있어서 사회경제제도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있어 그 발전적 제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면에서 내세워진 교리가 실제로 우대되면 그것이 사회주의적 실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의 거센 장애물이 될것 사실이다. 서구 여러나라에 있어서 국가자본주의적 「콘체른」이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며, 또한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해준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 결국 카르델리의 견해는 유럽공산주의가 시민적 민주사회의 여건하에서 사회주의의 길을 택한 이상 불원한 장래에 현대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제문제를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있다.

카르델리는 위와같은 인터뷰의 지상 토론을 통해서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적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특권 정당의 주도권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註2)

사회주의적 자치행정이란 다만, 사회주의 발전의 한 형태이며, 한 국민으로써 사회주의적 실제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장래를 내다 본 것이라고 했다. 註3) 그리고 유고사회는 그들이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대해 자부하고 있고, 또 이 달성한 것을 잘 보위할줄도 안다는 것이다.

註 2) SÜDOSTEUROPA, H.4/1977, S. 111

3) SÜDOSTEUROPA, H.4/1977, S. 112

그러나 카르멜 리는 유고의 자치행정이 사회주의 건설의 유일한 모델로써 현시점에서 모든 나라의 상황과 합치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세계사회주의 (Weltsozialismus) 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에 있어 현재의 사회체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대화가 아주 요긴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현재의 상황은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 상호관계를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를 억압하는 것은 국제적인 압력인데 이는 지속적인 위협이나 또는 여러가지 관여 형태로서 취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These 나 특수상황에 대한 분석의 제논거를 규명하는 건설적인 대화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선에서 행해져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사회주의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동료국가들을 일깨워 주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나의 그러한 대화없이 는 그들 상호간에 왜 사회주의적인 실제형태가 자기 다른가 하는 점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대화없이 왜 중소간에 분쟁이 생겼고, 왜 스탈린과 우리들 유고인이 대립되었던가도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발전의 실제에 있어서 차이와 모순 그리고 제원인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입론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화를 못하도록 억압해서 정치적 모순이나 정치적 분규를 조장하려 든다면 이러한 제문제의 마르크스주의적인 해명은

어려워 진다고 한다. 註 4)

유고는 유럽공산주의에 대해 '76년 7월 이후 여러 차례 논평 했는데 바 카르멜리의 위와 같은 인터뷰이 외에도 최근에 유고가 밝힌 그의 입장을 몇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비근한 예로써 '77년 2월 14일 유고공산당 중앙위원인 알렉산더 그블리코브 (Dr. Alexander Grlieckov) 박사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고일간지 「보르바 (BORBA)」를 통해 발표했던 바 그 요지는 一元의 통일이 다양성의 통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註 5) 그에 의하면 다양성을 통한 통일의 문제는 사회주의국가 상호관계의 구조와 제도, 주권 및 내정의 상호 불간섭, 각기 국민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관련된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통일적 정치노선이 각기의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일치되는 정치노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적 규범에 입각한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는 각기의 이익을 위해서 각국 공산당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註 4) SÜDOSTEUROPA? H.4/1977, S. 112

5) Monolithische Einheit durch Einheit in Vielfalt ersetzen (一元化통일은 다양성의 통일로 대체되어야 한다) in: Sonderlieferung der MONITOR-REDAKTION der Dt.Welle - Eurokommunismus I, Köln, Mai/1977, S. 39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만이 공산주의적 노동자 운동의 실리적 발전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그 추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를리코브의 지론이다. (註 6)

그는 또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근본적으로 변환되는 데는 거의 4 반세기 동안 존속해 온 一元的 국제공산주의 기구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기구는 개개의 민족적인, 독립적인, 노동당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여건에 알맞는 자주적인 민족의 정치노선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註 7)

그를리코브는 그가 쓴 논설의 대부분을 유고의 대소련 관계에 대한 1955년의 「벨그라드선언」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 벨그라드 선언의 원칙은 유고공산주의자 동맹과 소련공산당과의 관계가 1958년의 「모스크바선언」에 의해서 인정되었음을 밝힌 것이었다. (註 8) 이 두 선언의 방정문서는 공산주의 노동 운동에 있어서 소련공산당과 여타 사회주의국 공산당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본이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註 9)

註 6) Eurokommunismus I, in: Monitor-Bericht, ebenda,

S. 39

7) Eurokommunismus I, ebenda, S. 40

8) Eurokommunismus I, ebenda, S. 40

9) Eurokommunismus I, ebenda, S. 40

2) 루마니아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루마니아는 유럽공산주의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여권하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현대적 형태라고 논평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교수들이 타국의 외교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작년 7월 루마니아의 전주미대사 실비우·부루칸 (Silviu Brucan)이 뉴욕욕 타임즈에 논설을 실고 유럽공산주의를 논평한 바 있다. 註1)

"A Rumanian, on the Italian Reds" 라는 제목하에 유럽공산주의를 논평한 루마니아의 입장을 보자.

1848년 공산당선언이 나온 이래 세계는 크게 달라졌는데, 근래 이탈리아의 경우만 보아도 공산당이 정권에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탈리아는 예전의 지배계급 (보수세력)이 활발히 통치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민중은 공산당을 정권에 참여토록 지지해준 동시에 모든 변화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공산당이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주체세력을 가졌는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註 1) New York Times (2.7.1976)

이탈리아 공산당은 선거결과에 의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참여에도 위축되었지만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제혁명이 언제나 국제분규를 유발한 것을 보면 세계 전략상 중요한 지역에 있는 저 나라 공산당이 저 과업을 이행할까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정권참여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세계에서 첫 폭발인 셈인데 산업혁명을 가졌었다는 역사적인 조건은 유리한 一面이기도 하다. 그로 말미암아서 서구는 부유하고 높은 발전도를 가졌으며, 세계의 잔여 부분은 후진적인 상태에 있다. 현시점까지 자본주의적인 서구세계의 이 중심부분이 1, 2차대전에 뒤이은 혁명의 동요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것도 사실이다. 레닌은 자본주의권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킬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만, 혁명의 성과를 덜 발전한 나라에서 기대했었고, 거기에서 사회주의가 세계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육성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다. (註2)

이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이탈리아 공산당의 전략과 강령이 예전의 공산주의 입장이나 사회주의사회를 이룩한 모델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註 2) Eurokommunismus aus rumänischer Sicht (루마니아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5/6/1977, S. 158

지금 이탈리아의 공산당 지도자 엔리코. 베를링거 (Enrico Beringuer) 는 이탈리아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二元的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하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이다.

민주질서가 있는 곳에는 급진적인 변화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이탈리아 사회자체에 있어서나 또는 나토 및 E. C에 참여하는 이탈리아의 회원 구성면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전제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제열강이 서로 묶여 있고 또, 내외정치가 점증적으로 얽혀져 가고 있는 하나의 세계속에 살고 있다.

이 새로운 전제조건이 사회혁명적인 이론과 전략을 새로이 형성토록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칠레의 경우, 내정의 전제조건이 혁명의 발발을 유도한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질서의 공고화는 국제적인 재권력구조에도 관계된다는 것을 국제적인 방법으로 잘 보여준 케이스이다. 결국 内政의 변화는 그 지역정치 (Regionalpolitik) 에 잘 반영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경제 및 재정지원에도 크게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숙고해 보면 프랑스 사회주의 지도자인 Mitterando이 197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전선의 후보자가 프랑스 대통령으로써 하나의 지역체제의 중간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유지하는 지역체제란 NATO와 E.C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는 바 이 두 기구가 그를 적대시하고, 또 항상 프랑스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랑貨를 레몬짜듯이 쥐어 짤 것이다. 나는 Mitterand 씨가 그러한 난국에 처해 있으면서 지스카르대통령 보다도 자본주의 체제를 더 잘 이끌어 갔을 것인가는 꼭 의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서방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화는 실현의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있다.

결국 서로가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에서 성공적인 혁명을 위한 그 전제조건은 국내적으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역시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결국 위와 같은 관점에서 얻은 논리적 귀결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그리스까지 번진 서구의 사회주의는 内外政을 통해서 먼저 지중해권에 뿌리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모든 나라에 강한 공산당들이 있어야 하고, 또 사회주의자들은 북쪽에 있는 그들 동료들 보다도 좌파통합을 위해 더 과감해야 한다.

결국 이들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언젠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집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위치를 더 공고화 해주는 것이 문제이다. 註3)

註 3) SÜDOSTEUROPA, H.5/6/1977, ebenda, S. 159

금년 7월 30일 초세스쿠의 초청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카릴로는 훌륭한 대접을 받았으며, 두 나라 공산당의 우호증진을 거듭 다짐했는데 공동성명을 통해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두 나라는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두 나라 공산당이 우호와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공산주의 건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기에 각국의 국민이 처한 역사적인 여건을 심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註4) 즉 루마니아는 스페인 공산당의 투쟁 방법을 온전히 인정해 주고 있는바, 이는 서구 공산당의 독자적인 진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다는 논거가 된다.

서구 공산당이 유고와 루마니아의 지지를 받고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註 4) Kommunique über die Gespräche zwischen Ceausescu und Carrillo (초세스쿠와 카릴로 회담의 공동성명), in: Monitor-Bericht vom 1. August

3) 헝가리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베를링거, 마르세, 그리고 카틸로가 회동한 마드리드의 "유럽공산주의자 정상회담" (註 1)에서는 "유럽공산주의적"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산권에서는 이 유럽공산주의라는 말이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어 있다. 소피아에서 열린 동블럭의 정론가들 회합에서 불가리아 공산당수 vivkov가 유럽공산주의를 反소주의의 同意語라고 한 바 있지만, 저들 회합의 폐회 커뮤니케에서는 역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註 2)

그러나 1976년 6월의 「東베를린회의」 이래 東歐圈에서 유럽공산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최근에 와서 유럽공산주의가 소련이나 동구의 反체제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76년 12월 헝가리공산당은 János Kádár 당수의 오스트리아 국가 방문을 계기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엔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ádár가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註 1) Eurokommunismus aus ungarischer Sicht (헝가리가 보는 유럽공산주의),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3/1977, S. 67

2) SÜDOSTEUROPA, H.3/1977, ebenda, S. 67

“유럽공산주의가 反소주의를 뜻하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 註 3)
라고 이야기한 Todor Vivkov의 견해에 동조하느냐는 한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이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77년 1월 Kádár는 “사회주의와 평화의 제문제”
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에 언급했던 바 그들은 유럽공산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註 4)

Kádár의 비엔나 발언이후 헝가리는 계속 그들의 신문이나
당기판지를 통해 유럽공산주의를 논평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헝가리가 보는 유럽공산주의의 주요점은 다음 세가지이다.

註 3) "Echter Sozialismus - eine mächtige Waffe
unserer Propaganda". Ideologen des Ostblocks
erörtern in Sofia Fragen des wissenschaft -
lichen Kommunismus und Eurokommunismus (참된 사회
주의 - 우리선전의 무기 . 유럽공산주의와 과학적 공산주의에
대한 동구권 정론가들의 소피아회합) , in: Sonderlieferung
der MONITOR-Redaktion d.dt.Welle, Köln, Mai/1977,
S. 27

4) World Marxist Review. Problems of Peace and
Socialism, Dec./1976, PP. 3 - 15

첫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독자적인 민족노선의 강조이고, 둘째는 유럽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소련에게 연결하려는 중재. 시도이며, 셋째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공산당의 특이한 상황을 풀이하면서 다른 당의 일에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점이다. 註 5)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독자적인 민족자주노선의 강조는 사회주의에로의 도정에서 헝가리의 경험을 해명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란 어떠한 공산국가도 도의시할 수 없는 하나의 국제적인 특정 법칙에 의해 이룩되는 과정이라고 입론한다. 그러나 모든 공산당이 자기의 민족적인 특색과 내정적인 상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시인하고 있다. 즉 이 말은 각계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들 자신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건에 일치시켜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Kádár의 논설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먼저 현존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주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사회주의에로의 하나의 길이 있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아 말했다.

註 5) SÜDOSTEUROPA, H.3/1977, ebenda, S. 68

“역사과정에서 우리는 집권에 이르는 여러가지 방도를 배웠고 그리고 그를 유지하는데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알고있다. 모두 相異한, 그러한 조건하에서 한 계급이 집권하게되고 또 그들이 발전시킨 권력의 형태는 각기의 특정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註 6.) 라고 말하고 있다.

서구공산당의 내정문제를 논하면서도 향가리는 동조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즉 그들은 사회주의의 일반노선을 탈퇴하려고 하는 유럽공산주의를 시인하며 고도화한 현대산업사회의 계분제를 적절히 처리하려는 서구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옳다고 보고 있다.

헝가리 공산당 중앙위의 외교분과 위원장인 G. 아오른(Aorn)은 그들의 외교誌 *Külpolitika*를 통해 서구공산주의를 논평했는데, 서구공산주의의 대두는 사회주의가 국내외의 계급적인 敵을 去勢하려는 완강한 계급투쟁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몇몇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시도는 동구라파에 일어났던 것보다 확실히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당도 이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여러당의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을 도의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註 7)

註 6)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7)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Aorn은 또 동의교誌에 실린 논문에서 二元主義의 이론을 조심스럽게 수긍했고, 또 서구공산당간에는 참정문제와 미래의 권력구조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가 있을수 있다고도 보고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는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함을 시사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미래에 관한 제서구공산당의 공통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정해 놓고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유재산은 주요생산 방법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인정될 것이다.

둘째, 복수정당제도하에서도 물론 노동자층이 지도적 당이 되겠지만 그 제도 자체는 계속 존립할 것이다.

셋째, 노동자층에게 생소한 反마르크스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이념들이 계속 널리 보급될 것이다라는 등이다. 註8)

그후 아오른은 그의 주장을 더 구체화했었는데 서구공산당이 계급투쟁을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꾸준한 정치이념적 과공을 통해서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한다고 한다. 註9)

Aorn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외교정책 평론가인 Ferenc Varnai는 이념문제의 전문가로써 서구공산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 설명하고 있다.

註 8)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9)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공업화라는 발전된 바탕을 가진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는 20세기 초에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다. 즉 러시아의 상황은 제국주의의 기반을 탈피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지주층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여러나라의 지배층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층의 손으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공산주의의 이러한 方途는 동구 인민민주주의와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서구공산당이 주장하는 모든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Varnai의 주장의 골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서구공산당이 제시한 기본이념의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기본이념이란 각국의 민족적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Varnai는 저들 공산당들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가졌다는 윤곽을 그린 것이라고 보고있다. 물론 그의 제의가 서구공산당에게 동구의 모델이 언제나 합당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오류를 범하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들처럼 그들 나름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타결하는 방도를 필경 찾는다는 것이다. 註 10)

註 10)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70

결론적으로 보면 헝가리 공산당이 유럽공산주의의 이념적 제문제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헝가리 공산당은 서구공산당이 형제당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원조와 공동 타결책, 사회주의국가의 시민사회 비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그들 각기의 국민에 대한 공산당의 책임등을 역설하는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 상호간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의 공산당운동에 대한 공동책임은 져야한다"

즉 "서로의 의사 교환은 공동원칙의 바탕위에서 행해져야하고 기본적인 관심과 목표도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화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註 11) 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컨데 헝가리 공산당은 지금 유럽공산주의의 발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점차 동구공산당과 서구공산당간의 간격을 좁히는 중개역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

註 11)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71

참 고 문 헌

- 1) Adenauer-Stiftung, Jugoslawien im Umbruch (전환속의 유고), Mainz/1973
- 2) H.Brahm, Trotz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 (레닌의 후계권을 에워싼 트로츠키의 争斗) Köln/1964
- 3) -, Pekings Griff nach der Weltmacht (세계 열강에 로의 北京의 시도), Köln/1966
- 4) -, Der Kreml und die CSSR 1968-69 (크레믈린과 체코 1968-69), Stuttgart/1970
- 5) F.Beer, Die Zukunft funktioniert noch nicht (未来는 아직 도 예측을 不許한다), Frankfurt/1969
- 6) V.Dedijer, Stalins verlorene Schlacht (스탈린의 패배한 싸움), Wien/1970
- 7) M.Huber, Grundzüge der Geschichte Rumäniens (루마니아史 概要), Darmstadt/1973
- 8) H.Höhmann, Die Wirtschaft Osteuropas zu Beginn
Der 70er Jahre (1970年度初의 東歐經濟),
Stuttgart/1972
- 9) W.Leonhard, Die Dreispaltung des Marxismus (마르크스주의의 三分裂), Düsseldorf/1970

- 10) J.G.Reißmüller, Jugoslawien - Vielvölkerstaat
zwischen Ost und West (유고 - 東西사이의
多民族國家) , Düsseldorf/1971
- 11) R.Selucky, Reformmodell CSSR - Entwurf einer sozialis-
tischen Marktwirtschaft oder Gefahr für
die Volksdemokratien. (체코의 개혁모델 - 사회주
의적 시장경제제도나, 인민민주주의 위협이나) ,
Hamburg/1969
- 12) H.Siegert, Rumänien heute (오늘의 루마니아) , Wien/1966
- 13) R.Supek u.
B.Bosnjak, Jugoslawien denkt anderes (유고는 달리 생각
한다) , Wien/1971
- 14) Osteuropa(東歐誌) - 3/1956, 11/12/1960, 6/1964,
7/8/1964, 2/1970, 6/1972, 7/1972,
9/1972, 5/1975, 11/1975, 5/6/1976
- 15) Südosteuropa(東南歐誌) - 3/1976, 4/1976, 3/1977
4/1977, 5/6/1977
- 16) Sowjetunion heute(오늘의 소련) - 12/1969
- 17) Europa Archiv(西獨의 外交誌) - 12/1968
- 18) Monitor-Bericht(西獨放送局의 速報) - (1.8.1977)
- (Mai 1977)
- 19) New York Times (2.7.1976)
- 20) World Marxist Review. Problem of Peace and Socialism,
Dec./1976